

失職에 휘청 빛에 허덕...탈출구가 없다

흔들리는 중산층

①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원인

울산에 거주하는 김철수(55·가명) 씨는 지난해 6월 20년간 다니던 조선소의 경영난으로 회사를 떠났다. 조선업황이 호황일 땐 인센티브를 더해 연간 받는 급여가 1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을 떠날 땐 은행에 1억 원 담보가 잡힌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실제 이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씁쓸이를 크게 줄였지만, 불안한 삶의 연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영희(49·가명) 씨는 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중산층 가구였다. 그는 2009년 폐암 1기 진단 후 꾸준한 치료 덕에 병세가 호전됐지만 5년이 지난 2013년에 재발하면서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담당 주치의가 신약 폐암 표적치료제를 권했지만, 월 약값이 1000만 원에 가까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내몰렸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저

가계소득 늘지 않는데 곳곳 위험요인 하루아침에 저소득층 추락 빈번해져 은퇴후 자영업 진출...상황 더 악화 '메디컬 푸어' 전락하는 경우 적지 않아

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산층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현상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곳곳에 위험요인이 도사리면서 중산층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6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득 감소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산층 붕괴 조짐은 업황 사이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은퇴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상황만 더 악화시킨 것도 중산층 이탈을 부추기고 있

다. 가족 중에 예기치 않은 병마가 찾아와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률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비중이 65.7%로 전년(67.4%)보다 1.7%포인트 급락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39만90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다. 물가 상승분을 제거해서 보는 실질 가구소득 증가율도 비슷하다.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뒤처지며 지난해에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7년 만에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있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월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월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양창균 기자 yangck@

국민 결의로 '소통' 행보 고착화한 인사난맥 속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긴장 고조, 복지 정책 확대, 82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 자·초대기업 증세, 탈원전 정책 등 100일간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밝히고, 이후 출입기자단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관련기사 2면

취임 100일, 문 대통령의 평가는 현재 어떨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은 서민과 어려운 이웃에 다가선 감동 소통 행보다. 하지만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점은 인사 난맥이다.

먼저 감동 소통 행보는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사과의 뜻 표명과 진상 규명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데서 잘 드러난다. 또 8일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진 점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이 취임 초 성장통으로 겪었던 인사 난맥은 문 대통령도 피해 가지 못했다. 정지권과 여론조사에서 문제점으로 꼽힌다. 좁은 인재풀과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량평책은 인사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의 100일간의 행보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은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다.

특히 적폐청산, 갑질 문화 근절 등 개혁 행보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한반도 긴장 고조는 인사 난맥과 함께 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일자리 부담 영세中企에 '4조+α' 지원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기로

당·정·청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α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설하고 아동수당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대해선 3일에 걸쳐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15일까지 25%가 진행됐고, 17일까지 50% 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력 추적기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 나왔을 때 전량 회수해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

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제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을 통해 부담 완화는 총 4조+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 관행조건과 영업대책의 개선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지급 대상·금액·방식, 예산 등을 협의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는 다음 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내놓기로 협의했다. 맞춤형 주거복지를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고자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제·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foto@

AI 떠나자 살충제 파동...계란 한 알에 담긴 경제학 대체재 없는 계란, 끊이지 않는 수난

대형마트 등 관련제품 판매 중단 김밥·국수·프라이 생활과 밀접 추석 앞둔 상태 '계란대란' 우려 제빵·제과업체도 제품생산 고민

"살충제 계란과 무관한 것으로 빵을 만들었지만 계란 출하 중단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하 중단이 길어지면 제품 생산 중단까지 우려된다."(식품업계 관계자)

"아이들에게 줄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 계란 프라이에 간장을 더한 간장계란밥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살충제 성분이 들어갔을지 모를 계란을 먹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5·2세 자녀를 둔 30대 주부 윤모 씨)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에 하필 이번 닭과 계란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제야 후유증이 찾아드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덮치면서 계란이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6일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자 15일 자정부터 전국 3000마리 이상 계란 사육 농가의 출하를 중단시켰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3사와 농협하나로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부분이 계란을 비롯해 쿠키, 빵, 우유, 커피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도 생선과 구운 계란, 과자류 등 계란 관련 제품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유통업계는 작년 말 시작된 AI 여파로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까지 치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대형마트 3사와 농협하나로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국 모든 매장에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했다.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내 계란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이종근 기자 foto@

솟은 상황에서 이번 살충제 계란이 미칠 파문이 AI 때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석 성수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 사태가 장기화하면 '계란 대란'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는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폭등도 폭등이거니와 먹어도 되는 건지 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질 기세여서 파급력이 더 크다.

더욱이 계란을 그저 단순히 수많은 식재료 가운데 하나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대체할 식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AI 사태로 빛어진 공급 부족이 계란이 아닌 밀가루였다면 어땠을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겠지만 쌀과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있어대란으로까지 확산하진 않았을 것이다.
조병호 기자 spdran@

막오른 G2 무역전쟁...中 강력반발

中 상무부 "모든 조치 취할 것" 고율 관세·美 기업 조사 가능성 중국어인 관광·농산물 수입 중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주요 2개국(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중국이 어떤 카드도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에서 "미국 측이 다자간 무역 규정을 존중하지 않고 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강요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자 강한 반발을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각서 서명은 하나의 큰 움직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랫동안 정지권은 우리의 부(富)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눈감아왔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대선 후보로서 약속했던 것이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도 일제히 트럼프를 성토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 정부가 냉전 말기에 탄생한 도구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며 "이런 일방적 행동이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절대 해

미·중 무역전쟁 ※출처: 영국 BBC방송

향후 미국의 움직임

- 통상법 301조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개월~1년간 조사 예정
- 침해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산업보호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관세 등 무역제재 걸 수 있어

중국의 보복 카드는?

- 새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중국 진출 미국기업 조사
- 보유 달러화 자산 매각 검토
- 보잉 여객기와 자동차 등 수입 제한

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국을 더욱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이나데일리리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297만 명, 이들이 쓴 돈은 330억 달러(약 38조 원)에 달한다며 미국은 관광시장의 가장 큰손인 중국인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서 관광은 6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5%도 안 된다며 무역전쟁을 결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전문가들은 중국이 역으로 미국에 반덤핑과 정부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조사하고 보잉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보복카드를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또 미국채 등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측도 대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전기기계와 의료, 완구산업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선불리 보복에 나설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준호 기자 baejh94@

3000만원대 수소차
한 번 충전에 580km
현대차 내일 공개 ▶10

머니&이슈 ▶18
실손보험 무용론?

유명명장을 찾아서 ▶12
조판기 롯데주류 탐장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湖南총리·女장관 30% 공약 실현... '내로남불' 난맥상 노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고졸신화’ 김동연 부총리·비주류 女외교수장 강경화 파격 검증부실 ‘5대 비리인사 배제’ 못지켜... 報恩인사도 오점

풀기 어려운 숙제 ‘인사’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출범 초 최대 압초는 ‘인사 난맥’이었다. 호남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고졸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첫 여성 외교수장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초기만 해도 ‘대통령’·‘파격’ 인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하자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국회 인증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4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거나 지명 후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도 발목을 잡았다. 공약과는 달리 상당수의 인사가 이 원칙에 어긋나면서 ‘공약 파기’ 논란까지 일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갈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이해를 구했음에도 야권에서는 ‘내로남불’식 해석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경화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 때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인사 풀 한계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현역 의원 출신으로 채우기에 이르렀다.

잇단 고위 공직자 낙마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은·코드인사’ 논란도 오점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의 58%가 대선 캠프 또는 참여정부

출신이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는 그 비율이 66%에 이른다. 특히 최근 박 부부장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문지마’식으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장관 몇몇이 낙마하고 비리가 있는 인사가 임명된 건 향후 정권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참사로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는 문 정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인사원칙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운동권 출신, 캠프 출신, 시민단체 출신이 전부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경고했다.

정부 출범 100일이 되도록 첫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잇따른 인사 난맥에 검증 시스템이 더 엄격해진 탓일까. 18부5처17청의 수장 중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은 여전히 후보자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박기영 전 본부장의 사퇴로 차관급에도 공석이 생겼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도 주요 4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 임명도 늦어지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비율 30%’가 실현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다.

현재까지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전체 장관 18명 중 5명(27.8%)이 여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여성이 낙점되면 이 비율은 32%까지 오른다.

전민정 기자 puri2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시민과 격 없는 셀카... 靑 앞길 개방

파격적 소통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보여준 역대 정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과의 격 없는 파격 소통 행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 대통령’을 약속했다. 실제 행보도 취임 첫날부터 출근길에 시민에게 격의 없이 다가와 인사하고 셀카 촬영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표방하며 시민들과 편안하게 마주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첫 현장 행보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였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5·18 유족 묘소 참배,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면담 등 가슴 아픈

국민들 겨냥기에 나서 일관된 감성 정치를 펼쳤다. 무엇보다 행사 때마다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인사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문 대통령의 격식 파괴는 업무에서도 나타났다.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하기엔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관과의 거리가 멀다며 취임 사흘째부터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겼다. 참여정부 이후 단절됐던 수석비서관·좌·좌관회의를 복원한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계급장·반아쓰기·사전결론’이 없는 ‘3무(無) 회의’를 열었다.

특히 오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자리에 앉도록 하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힘썼다. 또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들과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식사를 함께 먹고, 청와대 5당 대표 간 회담 전에 직접 테이블을 옮기기도 했다.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줬다. 청와대 관광객에게는 직접 나서 인사를 하고 여민관 앞에서 관광객이 문 대통령을 부르던 집무실 창문을 열고 호응하는 등 ‘국민의 대통령’ 모습을 보였다. 신동민 기자 lawsdm@

70%대 지지를 고공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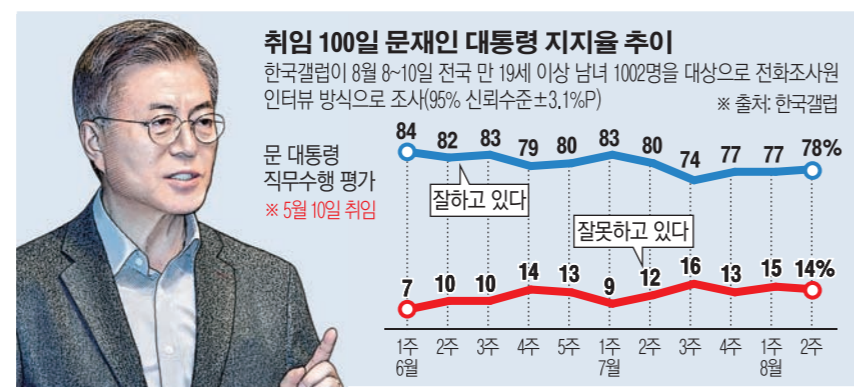
개혁·소통으로 상승... 脫원전·外交에 발목 잡혀

취임 100일 국정지지율 ‘78%’ 김영삼 前대통령 다음으로 높아

출범 초기 역대 최고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탈(脫)권위 소통과 개혁 행보로 모든 연령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북핵 위기와 맞물린 안보 대응력, 탈원전과 같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태도 등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게는 70%대 초반, 높게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8%를 기록했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도 13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선 78.6%로 나타났다. 다만, 리얼미터의 14일 발표에선 71.7%를 기록했다. 취임 100일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김영삼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셈인데, 문 대통령 취임 4주차 때의 국정 초기 지지율은 84%(한국갤럽 조사)로 역대 최고였다.



문 대통령은 100일 동안 스스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 국민과 거침없이 악수를 하고, 눈물 짓는 이들을 안아주는 파격과 소통, 감성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가 드러난 검찰, 대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세금을 줄먹는 방산비리가 터진 군 등 권력기관에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 레드라인을 넘어서선 설전을 주고받고, 판 포위 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북미 간 힘겨루기 속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제

인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공격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 과정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부정평가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10일 갤럽 발표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의 부정평가 이유 중 첫 번째는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란 응답으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13%에 달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지지를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김미영 기자 bomnal@

檢 인적청산·국정원까지... MB·朴정부 정조준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5월 18일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뉴스시

보수야당 ‘정치보복’ 거센 반발 미질 근절·4대강사업도 재조사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폐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 일단 적폐를 드러낸 칼날 역할을 할 검찰부터 개혁 대상이다.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진보성

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부터 검찰 개혁을 향한 청와대의 의지가 드러났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권력의 분산·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비슷한 성향인 법학자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 것도 적폐청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박 장관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 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 개혁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대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던 윤석열 검사의 복귀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TF가 밝히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군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군 검찰단에 소환된 것은 군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다. 현재 공관병 전 수조사 등이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지연하를 위해 지난달부터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데 이어 정밀조사와 평가를 거쳐 재지연을 추진한다.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혁에 칼을 빼 든 문재인 정부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지난해 月소득 증가율 0%대 추락... 중산층 비중 '역대 최저'

(2006년 통계 이후·시장소득 기준)

흔들리는 중산층

깊어진 소득불평등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지표에서 중산층을 표시하는 수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16일 통계청과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50~150% 미만인 중산층 비중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크게 떨어졌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이 통계청에서 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낙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비중은 65.7%로 전년(67.4%)보다 1.7%포인트 급락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3.1%)과 직후인 2009년(63.1%)에 박막을 보였으나 2010년 64.2%로 회복한 뒤 2012년(65.0%)과 2013년(65.6%)에는 평균 65%대를 유지했다. 2014년에는 65.4%로 추축했지만 2015년에는 67.4%로 중위소득 가구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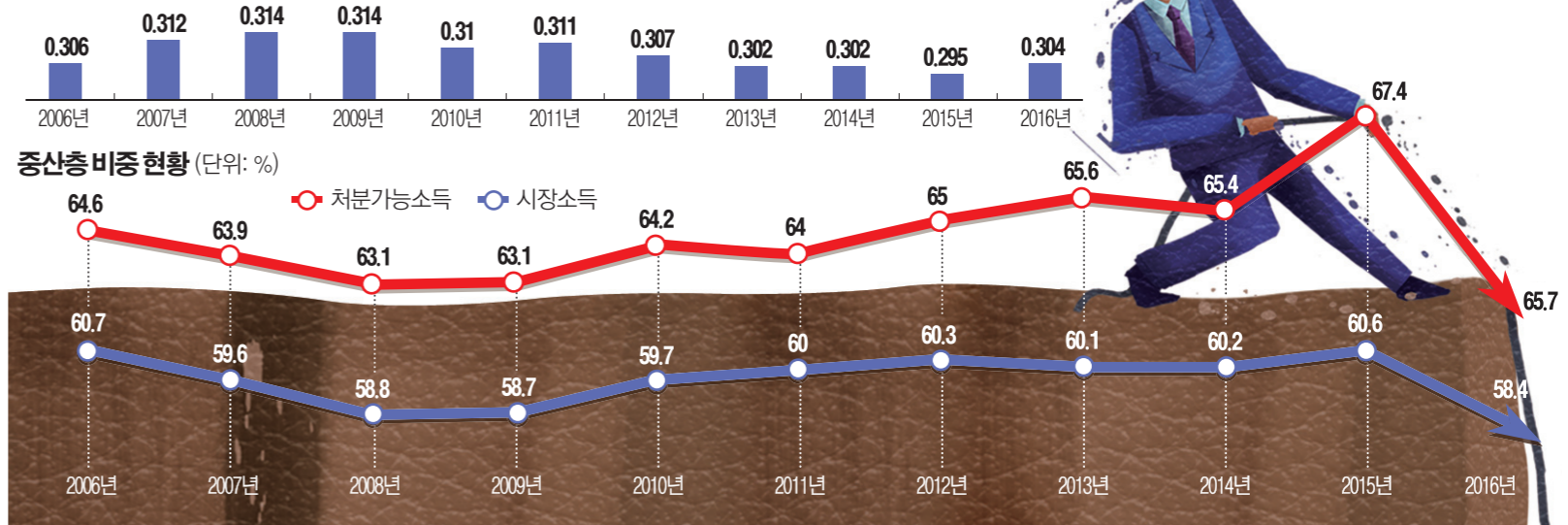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58.4%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65.7%로
전년보다 1.7%P 급락 '낙폭 최대'
상대적 빈곤율 14.7%...0.9%P 상승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늘어

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산층 붕괴 우려감이 형성됐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13.8%)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니, 소득불평등을 표시하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악화됐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증가한 것이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가구 비중도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4%에 그치며 전년(60.6%)에 비해 2.2%포인트 급감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가구 비중은 통계청이 처음 지표를 산출한 2006년에는 60.7%였다. 이어 2007년(59.6%)과 2008년(58.8%), 2009년(58.7%), 2010년(59.7%)과 2011년(60%)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2006년 이후 최고치인 0.353까지 뛰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39만90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전년 대비 증가율로 역대 최소였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2010~2012년 5~6%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6%로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는 0%대로 내려갔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통계 수치가 볼 때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산층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러한 지표가 일시적인지 또는 추세적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 양창균 기자 yangck@

트럼프 '말폭탄'은 계산된 시나리오?

미치광이 이론 (美 vs 北)

美 트럼프	"북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8일) "화염과 분노 발언 충분히 세지 않아"(10일)
北 김정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광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방한 검토"(9일)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北-中

	중국 (북한 제재에 동참 안함)	중국 (북한 제재에 동참)
북한 (핵 포기 안함)	미국이 둘 다 제재	중국은 제재 해제, 북한은 제재 강화 (중국에선 최선, 북한에선 최약)
북한 (핵 포기)	중국만 제재, 북한은 제재 완화 (중국에선 최약, 북한에선 최선)	미국이 둘 다 제재 해제 (북·중에선 최악)

미치광이 이론

미친 척 하자니 김정은도 만만찮고

죄수의 딜레마

시진핑까지 엮어 '어부지리' 노림수

'공생 혹은 공멸' 北-美-中 긴장관계에
美 언론, 경제이론으로 접근해 분석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북한 3자 간의 정세가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 외교의 미덕인 신중함은 온데간데없고 말 폭탄 등 험박만 난무하다니 결국 미국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무역 제재 카드까지 빼들었다. 이들의 말 전쟁은 과연 계산된 결과일까.

말 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이었다. 트럼프의 발언에 북한은 광 탄도미사일 발언으로 위협했고, 이를 뒤 트럼프는 다시 "화염과 분노 발언은 충분히 센 발언이 아니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자 트럼프는 중국을 끌어들이 압박 수위를 높였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CNBC는 광란의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를 두고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에 입각한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다. 미치광이 전략을 쓴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으로는 닉슨이 꼽힌다. 과거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전 세계적으로 핵 전쟁 공포를 조성했다.

뉴욕대학교의 스티븐 브람스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가 미치광이 이론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람스 교수는 "트럼프는 대선 전, 대선 후 여

러 번 협상이 필요한 순간에 '예측할 수 없다(unpredictable)'는 점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람스 교수는 "미치광이 전략은 특정한 경우에는 잘 통하지 않는다"며 "사업 협상에서는 트럼프의 위협이 잘 통했는지 모르지만 외교에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트럼프는 사업가 몇 명을 위협에 떨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람스 교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트럼프처럼 미치광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대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치광이 전략의 다음 단계로 '게임이론(Theory of games)'에 근거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론은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게임이론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두 죄수가 자백을 회유 받는 상황에 놓이면 용의자는 자신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고르거나 상대의 의중을 살피다 결국 차악을 고른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죄수로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나라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차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치다. 하지만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미국도 예외될 수 없다. 모든 나라는 자국이 우선인 만큼 상대국의 전략이 항상 협동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비대면 계좌 개설 EVENT

현대증권그룹
하이투자증권

직접 하게 대면 "하하하하" 하이투자증권

현금 최대 100만원 기회 제공! 윤종신 이모티콘 증정!

기간 : 2017년 7월 17일 ~ 8월 31일
대상 : 신규 및 휴면 고객의 비대면 개설 계좌(스마트지점)

이벤트1. 직접 개설하게 대면 혜택이 하이!

- 혜택 01
온라인 주식 거래 수수료 7년 무료(선물·옵션 3개월 무료)
- 유관기관 수수료는 본인부담
- 혜택 02
현금 5만원 지급(100만원 이상 매매 시)
현금지급 매개기준일 : 7/17 ~ 9/8
※ 본 이벤트는 "5만원 혜택 신청하기"를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이벤트2. 신용/주식담보대출 금리는 낮추고 혜택은 고고고!

- "신용보증 수 1,707개, 담보대출 가능종목 1,676개(17년 6월말 기준)"
- 혜택 01
1년간 무조건 4.9% 우대금리 적용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적용)
- 혜택 02
현금 2만원 지급
(9월 15일까지 100만원 이상 신용/주식담보대출 실행 시)

이벤트3. 종목추천서비스 받고 혜택이 하하하하

- 혜택 01
종목추천서비스 1개월 무료
- 혜택 02
현금 2만원 지급
무로체험기간 이후 한달내 온라인에서 100만원 주식 매매 시
이벤트 기간내 종목추천서비스 신청 고객에 한함
(영업점 관리 계좌 및 스타뱅크 계좌, 서비스 해지계좌는 현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벤트 자세히 보기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미리보기



www.hi-ib.com 고객센터: 1588-7171

하이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7-000-108(2017.07.19~2018.07.13)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선물옵션은 원금초과 손실 위험이 있으며, 계좌 잔고가 유지중거래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 신용으로 주식 등의 증권을 매입할 경우 추가하락 시 담보물의 평가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무료가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일반위탁수수료율은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거래금액의 0.0972~0.4972% 선율은 0.002~0.04975%가 부과되며, 옵션은 0.15%~1.4% 수수료로 옵션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이자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신용이자율은 10일 6%, 30일 7.5%, 60일 8%, 90일 9%, 91일 이후 11%입니다. 예탁증권 담보대출은 매달 4.9% 인출권 7.6%가 적용됩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될 수 있습니다.

黨政靑 공조...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

文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오늘 세번째 회동

민주당, 13개 핵심과제 TF 구성·상임위별 책임위원회제
25·26일 의원 워크숍, 26일 청와대 오찬...협력 다지기로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3각 공조'를 강화해 정책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국정과제 '입법'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아동수당 문제, 국산 실종제 계란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소집된 만큼 집권 초기 국정운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항

후 상호 공조를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지난 정부의 예산에 대한 치밀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정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만큼 당·정·청의 공동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추미에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는 명실상부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

한 협의와 실질적 집행을 바탕으로 당은 가감 없이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와대는 결정하며 정부는 반듯없는 집행력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이 드러나는 예산을 편성하고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며 당과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기국회에서는 첫째 예산, 둘째 입법, 셋째 국감 등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안과 관련해 "이른바 '실종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서 빨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상가임대

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위원회'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 국회의 결산·입법 대전을 준비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5·26일 당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청와대도 26일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 당·정 간 소통으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개혁입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자 puri21@**

"법인세 인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8·2 부동산대책, 1대 99 평가르기"

文정부 100일 난타한 보수야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연속토론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조세, 부동산 등 정부정책을 난타하는 연속 토론회를 각각 시작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 앞선 여론몰이 시동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 기조연설을 맡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히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두고 "북한 핵과 맞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위기로 인한 외부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남유럽과 남미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자발적 법인세 인상을 선택한 유일한 나라로 확정되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금을 대폭 인상해 기업에서 유보이익을 환수하려 하면 경영진의 의욕 저하로 기업이익이 줄어들 게 자명하다"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에 이익이 더 배분되는 경영방식 채택을 통해 국내이익을 줄일 방법은 널려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정책위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는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 다 죽는다"며 "집값 하락 유도정책은 서민에게 되레 좋지 않다. IMF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12% 빠졌지만 그때 서민들이 좋았다. 부자들만 좋았다"고 일갈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시장 잡는 건 선전국조자 해결 못 한 문재인대 정부가 효과도 없음을 실증하는 것 같다"며 "1대 99로 평가르기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당은 외교·통일·국방과 교육 정책을, 바른정당은 외교·안보, 재정 대책을 추후 토론회 주제로 각각 다룬다. **김미영 기자 bomnal@**

"北 붕괴·흡수통일 원치 않아 군사행동 대한민국만이 결정"

文대통령, 광복절 72주년 경축사... 남북간 '대화의 문'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論)'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

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통일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기자 puri21@

경축식 앞서 백범 묘역 참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묘역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양보로 '추석後 국감' 합의한 3당 與野政협의체 손익계산... 정의당은 빼고?

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데 이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추석 전 국감'과 '추석 후 국감'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벌였다. 국감 개최 시기에 따라 국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당 모두 추석 후 국감을 주장해 여당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기동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추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9월 1일 정기회 개최를 하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5일부

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와 인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기동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세 등 주요 현안을 정기회에서 처리하고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참여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야당도 여·야·정 협의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정의당을 빼고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광호 기자 khlee@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납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납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휴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공정위, 다음 타깃은 ‘중소형 백화점’

판매된 수량만 매입하고 재고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 관행...실태점검 나서기로 중소형 백화점 ‘감시 사각지대’ 여전 뉴코아·태평백화점·NC백화점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백화점’을 정조준한다.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등 중소기업 백화점들의 재고 떠넘기기가 집중 타깃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중소기업 백화점의 ‘판매분 매입’ 실태를 조간간 조사한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매

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다. 납품업체가 먼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사후에 매입하는 선판매·후매입 구조도 띠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팔고 남은 상품만 매입처리하는 등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판매한 상품만 대금을 지급하는 특약매입 꼼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재고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 명목으로 비용을 뜯어온 장려금 문제도 납품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합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가 79곳에 달했다. 이 중 37.4%가 매입 형태와 관련된 ‘부당 판매 장려금 수취’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만 정조준하면서 중소기업 백화점의 실태는 감시 사각지대로 통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업체들의 매입실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기업 백화점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정작 중소기업 백화점에 갑날을 뺐은 시기는 올해 5월부터다.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 기간 동안 수수료 횡포를 부린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6개사가 적발되면서 중소기업 백화점의 갑질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AK·NC 등 중위권 백화점 3개사가 현대·롯데·신세계보다 적게는 2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기업 백화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공정위는 일부 중소기업 백화점에서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을 범으로 금지하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감시 유형은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형태다. 중소기업 백화점은 뉴코아, 태평백화점, NC백화점, AK플라자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기업 백화점의 관행도 문제”라며 “정부입법안 발의로 ‘판매분 매입 금지’와 관련한 대규모유통법 개정도 추진하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

창고에 쌓인 계란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대형마트 3사와 농협하나로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이 전국 모든 매장에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창고에 진열대에서 빠진 계란이 쌓여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1년 전 ‘살충제 계란 경고’ 무시한 정부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됐지만 수수방관 지난 4월 4% 표본조사하고 ‘이상 없다’ 결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겹쳐 정부의 뒷북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피프로닐을 비롯한 살충제 사용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실제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사태가 터졌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계사를 바꾸지도 않고 살충제를 산란계에 뿌려 계란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해외에서 살충제 계란으로 논란이 확산됐지만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올 4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농가 60곳의 표본을 추출해 피프로닐을 검사해 모든 농장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냈다. 국내 산란계 농장은 현재 친환경 농가 780개소를 비롯해 총 1456개소에 이른다. 그동안 국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안일한 태도로

불과 4%를 검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10% 미만의 표본조사 결과로 소 한체형성률이 97%에 달한다고 자신하다가, 실제 5%가 나왔던 올해 초 구제역 사례와 흡사하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연이어 발생한 AI와 구제역이 확산할 때마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김재수 전 장관에서 김영록 현 장관으로 수장도 바뀌었지만 방역당국의 무능은 그대로란 지적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내산에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면서 “진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는 국감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이 같은 행보를 보이던 정부는 결국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고서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피해를 우려해 15일부터 17일까지 최대한 서둘러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엔 문제가 된 경기도 남양주 농장 한 건만으로도 최소 10만 개 이상의 살충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살충제 계란이 유통·가공됐는지 전혀 가늠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손본다

공공성 강화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인천공항·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대상

정부가 인천공항·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되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실제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 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민자법에 대한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최소영수입보장(MRG)제도로 운영되며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되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금까지 MRG로 1조 3678억 원이 지급됐고 수익률은 9.36%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총 MRG 지급액이 6010억 원으로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은 9.24%에 달한다.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65.7%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해 앞으로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도훈 기자 sogood@

“금융시장, 복핵 리스크 대응”

머리 맞댄 김동연·이주열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두 달 만에 회동...北도발 따른 금융시장 영향·대응책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전 회동을 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회동에서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공유와 최근의 북한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만남은 올해 6월 김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가 만나는 것은 최근 북한 도발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4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0bp로 전날보다 1b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2월 25일(71) 이래 최고치다.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이 69bp로 갈

았던 중국은 오히려 68bp로 1bp 하락해 CDS프리미엄이 역전됐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은 119bp, 한국은 44bp로 75bp나 차이가 났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계부채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14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이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 간 긴장 고조를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주열 총재도 10일 서울대 규장각 행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회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도훈 기자 sogood@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시발 제17-024278(2017.06.02~2018.05.31)



추천받은 펀드 지금 사야해?

펀드레이더에 물어봐!

펀드레이더란?

빅데이터 알고리즘분석기반의 펀드투자관리 토탈솔루션으로 유안타증권만의 펀드 종합진단&스마트매매 시스템입니다.

펀드레이더 진단, 판단의 기준을 세우다

펀드의 선택만큼 손간의 포착이 중요합니다. 보유 펀드 진단을 통해 펀드의 매도/매수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펀드레이더 이벤트 시행 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2017.6.15~8.31)

IR사이트 www.yuantakorea.com 홈페이지 www.myasset.com 고객센터 1588-2600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집합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기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일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가 후려치기 겁나” 의사들 文케어 걱정

의사 88% 부정적 답변 의사총연합 등 5개 의사단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 결의 적정 수가 책정 작업 가시밭길 보험계, 보험료 인하 압박 걱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담체계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 개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나 예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의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시도·시회장단 모임을 열고 “의료수가 현실화와 재원 확보 대책이 부실해 파행히 불가피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 방침에 적극 대

응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먼저 적정 수가부터 보전해줘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 실행에 앞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의료수가 조정은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 대표 등이 모여 일일이 항목마다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산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비급여 항목의 수가 불합리하게 결정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국 의사총연합, 대한중부외과의사회 등 5개 개원의 단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아예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26일 광화문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의사 전용 웹사이트 메디게이트가 10~11일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수입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보험업계도 발표 때와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가 현실화할 경우 실손 의료비 보험료 인하를 조래하고, 실손보험 수요 자체가 줄어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어느새 가을, 긴소매 출근길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의 수크령 군락 사이로 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물며 당분간 평년보다 시원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故 강훈의 ‘망고식스’ 회생길 열릴까

강 대표 사망 전 회생 신청... 이번 주 결정날 듯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와 자회사 KJ마케팅의 회생 개시 여부 관련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커피왕’으로 불리던 고(故) 강훈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들이다.

KH컴퍼니의 회생 사건을 맡은 서울회생법원 13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25일 대표자 심문을 열려고 했으나, 강 대표의 사망과 회사 측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졌다.

현재 KH컴퍼니 대표는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 강모 씨 등 2명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이들을 불러 심문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기일에는 통상 회사의 자본, 자산과 부채, 영업·운전자금 조달방법, 회생계획 수립 방안과 변제조건 등을 확인한다.

법원은 자매 브랜드인 ‘주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의 경우 정관상 따로 후순위 대표가 없어 별도 심문 없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대표자 심문 이후 일주일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회생이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채권을 조사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KH컴퍼니와 KJ마케팅은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KH컴퍼니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과 함께 자산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강 대표가 지난달 24일 원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 대표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창업한 뒤 ‘카페베네’ 사장으로 취임해 업계 최초로 가맹점 500호 점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2010년 KH컴퍼니를 세운 뒤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지난해 4월에는 KJ마케팅을 인수했다. 하지만 망고식스는 수년간 가맹점 이탈과 수익 악화로 시달려왔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비보호 좌회전 차와 충돌한 과속 차량 40% 과실 판결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과속 차량에 4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 A씨의 보험사와 과속 차량 운전자 B씨의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통상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오는 차량의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피하고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할 의무가 없으나, 과속을 하는 경우는 틀리다”고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전방 상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미리 발견했을 것”이라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B씨는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106~110km로 갔다”라며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B씨의 배상 책임을 40% 인정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사내 축구 모임서 골절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초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씨가 축구경기 도중 입은 골절상을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라며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동호회가 입 및 경기 참가를 독려한 점 △축구경기 상대방이 거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을 도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가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뤄졌고 경기 후 회사에 늦게 도착해도 지각처리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박은평 기자 silverline@

한국, OECD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고 임금은 4분의 3뿐 연 2069시간 노동 멕시코 다음 2위

한국 직장인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16일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1.7개월 가까이 더 일한 꼴이다.

한국 취업자의 작년 평균 연간 실질 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2399달러로, OECD 평균(4만2786달러)의

75% 수준이었다.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이었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363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6389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4.0달러였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취업자는 독일 취업자보다 4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0%,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에 못미치는 셈이다.

연간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6만2636달러), 미국(6만154달러), 스위스(6만124달러), 아이슬란드(5만5984달러), 노르웨이(5만3643달러) 순이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는 연간 실질임금이 1만5311달러로 가장 낮았다. 이어 헝가리(2만1711달러), 라트비아(2만2389달러), 슬

로바키아(2만3508달러) 순으로 연간 실질임금이 낮았다.

노동시간은 멕시코(2255시간), 한국에 이어 그리스(2035시간), 칠레(1974시간), 폴란드(1928시간) 순으로 많았다.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는 독일에 이어 덴마크(1410시간), 노르웨이(1424시간), 네덜란드(1435시간), 프랑스(1472시간), 룩셈부르크(1512시간) 순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합니다

— 굿네이버스

민아에게 방학은 ()입니다

급식이 끊기는 방학이 되면
10살 민아와 동생은
급식카드 사용이 편한 편의점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방학은 ‘즐거움’이지만
민아에게 방학은 ‘배고픔’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굿네이버스는 방학 중 소외되는 국내 위기가장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및 문화체험, 심리정서지원 등의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방학지원
검색



대한민국 최초로 석유화학을 연구하다
이것은 **팩트**

우리만의 화학기술을
세계 60개국에 공급하다
이 정도 되면 **임팩트**

| 100% 독자기술의 고성능 신소재 박솔렌 60개국 수출 중 |

대한민국의 **팩트**를 세계의 **임팩트**로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1000억 증자’ 그친 케뱅..대출 숨통 트일까

〈케이뱅크〉

5000억 증자 앞둔 카카오뱅크와 규모 차이 커
대출 재개·주담대 등 신규 영업 추진에 의구심
은산분리에 덩치 못키워..카뱅과 격차 더 커질 듯

지난달 대출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대출 중단에 나선 케뱅이 1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그 규모가 미미해 대출 재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영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뱅과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각각 1000억 원, 5000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케뱅은 9월 27일, 카카오뱅크는 9월 5일에 자본확충이 완료된다. 케뱅이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적으로 1500억 원 유상증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첫 증자 규모로는 두 회사 간 5배 차이가 난다.

이에 자본확충이 완료된 뒤 대출 여력이 커질지 케뱅이 카카오뱅크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신용증권에 따르면 다음달 증자가 완료(BIS 비율 20% 유지)되면 케뱅은 1조

2095억 원, 카카오뱅크는 3조4595억 원을 추가적으로 대출할 여력이 생긴다. 대출 규모에서 3배 가까이 카카오뱅크가 앞서는 것이다.

이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케뱅이 1000억 원 증자로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신규영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케뱅은 다음달 말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주담대 등 신규 영업 추진과 함께 지난달 중지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 재개에도 나선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케뱅의 1000억 원 증자로는 거액 여신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고객수나 여신 규모에서 지금까지 차이가 났듯, 유증 규모에서 봤을 때 앞으로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케뱅이 카카오뱅크처럼 덩치를

인터넷은행 자본확충 계획 및 주주구성 ※ 출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신용증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500억원	현 자본금	3000억원
1000억원(9월27일) 1500억원(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유상증자	5000억원(9월5일)
1조2095억원	유증완료시 대출규모 추정 (BIS비율 20% 유지)	3조4595억원
19개사 우리은행(10%), KT(8%), 한화생명(0.4%), GS리테일(0.4%), 다날(0.4%), KG이니시스(0.4%), NH투자증권(0.6%), 기타주주 12개사(35.8%)	주주구성	9개사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국민은행(10%), 넷마블(4%), SGI 서울보증(4%), 우정사업본부(4%), 이베이(4%), Skyblue(텐센트, 4%), Yes24(2%)

키우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은산 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10% 제한)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본이자 실질적인 대주주인 KT(8%)가 지분율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여력이 안 되는 소액주주들도 현 지분율대로 유증하는 데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카카오뱅크(9조)와는 달리 주주도 19곳이나 돼 일일이 증자 참여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 케뱅이 9월 말과 이르면 12월로 나눠서 증자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 주력자인 만큼 은산 분리 규제를 받지 않고, 지분의 과반(58%)을 가지고 있어 동일 지분대로 증자했을 시 다른 주주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주주들 지분은 KT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사들여 했던 건데, 이들 소액주주들한테 더 투자하라고 하기가 애매하지 않았나”며 “은산분리라는 장애를 케뱅이 더 혹독하게 겪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소방관·집배원 등 보험가입 거부 논란 보험研, 고위험직종 가입 토론회 연다

“보험금 지급 폭증 손해를 우려”
생보사 실손보험 92.9% 거부
인권이 “일률적 건강평가 안돼”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관리팀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 팀장은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직후 이창욱 금융원 보험개발원장, 신원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류성경 동서대 교수, 김한목 삼성생명 상무, 천병호 메리츠화재 전무 등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가입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보험사의 고위험 직업군 거부 관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최근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는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30% 정도가 오도바이, 택배 등 운전 관련 직업, 스탠드맨 등의 직업을 가입거부 직업군

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 운영에 대해 해당 직종의 가입을 승인하면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군 직업 계약의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인상이 동반돼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군인, 경찰, 소방 등의 경우 통계상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고 비율이 높고 평균수명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모든 직책이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행정·지원부서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서들도 존재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역시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약 2-3주 후에 금융원 측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직업군의 손해율이 각각 달라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입을 받을지, 거절할지 고민된다”며 “위험률 등 보험 측면이 아닌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최저금리 年 1.5% 제공... 우리은행 임대주택 대출 늘린다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단독 취급
기존 주택 신축·리모델링 지원
건설·매입 6000·8000만원 한도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한국도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된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홍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서민 주거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임대주택자금 대출 최저금리를 연(年) 1.5%에 제공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이 활성화된다. 이 대출상품은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버팀목대출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처럼 실수요자에게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분류된다. 일종의 기업 여신인 셈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금융 취급 은행 가운데 총괄 수탁은행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우리은행만이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총괄 수탁은행은 용자 및 조성 업무(상담·창구)만을 할 수 있는 일만 수탁은행과 달리, 사업자 대출도 취급할 수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자금 대출을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출금리가 연 1.5-2.5%로 매우 낮다.

대출 대상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해 한국도지주택공사(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자로 LH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최대한도는 각각 건설의 경우 호당 6000만 원, 매입은 호당 8000만 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희망하

는 집주인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 호, 매입·전세임대는 5만 호를 각각 공급한다. 10월부터는 공공임대를 취급 기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검토에 들어가 공공임대 입주제도를 개선한다.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 30% 이상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기구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 및 거주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KB국민은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



KB국민은행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과 함께 14일부터 4박5일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400여 명이 참여하는 ‘KB스타비(飛)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주간의 사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영어와 좀 더 친숙해지고, 체험 중심의 캠프 진행으로 학습 흥미를 높였다. 캠프 종료 후에는 5개월간의 사후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기정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정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상반기 '연봉킹'은 권오현 부회장

〈삼성전자〉

특별상여 80억 포함 140억 받아
서경배 96억3500만원으로 2위
SK하이닉스 김준호 사장 9.7억
상여금 부회장보다 많아 이례적



문장으로서는 상반기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회성 특별상여' 명목으로 무려 80억2600만 원을 받았다.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장인 윤부근 사장과 IM(인터넷모바일) 부문장인 신종균 사장은 상반기에 각각 50억5700만 원과 50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보수는 8억4700만 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2월 구속 수감되면서 월 1억5900만 원인 급여를 두 달치만 받아 급여는 3억1800만 원이었고, 상여금으로는 5억2900만 원을 수령했다.

권오현(사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올 상반기 140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문경영인은 물론 오너를 포함해도 가장 많은 금액이다.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등기입원 가운데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로는 9억3700만 원을 받았고, 상여가 50억170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품) 부

오너 경영인 중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서경배 아모레퍼시

픽 회장이었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총 96억3500만 원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 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각각 40억5000만 원, 6억2400만 원을 계열사들로부터 받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로 기본급 20억 원에 상여 23억 원을 합쳐 43억 원을 받았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36억2500만 원을 받았고, GS 하차주 회장은 상반기 49억5300만 원을 급여나 상여로 수령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모두 41억8397만 원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반기 보수로 상여금 없이 급여만 10억 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 SK스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선임된 조대식 SK 사장은 급여 5억 원에 상여금 13억8000만 원을 합쳐 모두 18억

8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SK하이닉스의 경우 부회장보다 사장이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등기입원 보수 공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다른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례적이다. 올 상반기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13억9000만 원, 김준호 이사가 13억3300만 원을 보수로 각각 수령했다. 전 체로 보면 박 부회장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았지만, 상여만 놓고 보면 박 부회장(8억9000만 원)보다 김 사장(9억7000만 원)이 무려 1억 원 가까이 더 수령했다.

이에 대해 제계는 스타점사 출신인 김 사장이 최태원 회장의 신뢰를 쌓고 있고, 최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받을 당시에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포스코, 4년간 정규직 6000명 채용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 확보
5500억 상생협력 기금 운영도

포스코그룹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정규직 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앞서 매해 1000명 안팎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연간 1500명 수준으로 확대, 4년간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또 협력사 지원을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도 운영한다.

15일 포스코그룹은 인력 채용 계획과 협력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4년간 총 6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연간 1500명 규모로 기존 채용 인원보다 연간 500명씩 늘어난다.

포스코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활동에 동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튬, 양극재 등 미래 먹거리 연구·기술개발 분야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대폭 늘려 채용한다.

포스코는 앞으로 4년간 전공 구분 없이 신규 인력을 뽑는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도전적인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산학연계, 전역장교 채용, 공채 등 방식을 동원한다.

아울러 포스코는 5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도 운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 창업지원이나 그룹 1, 2차 협력사 대상 저리 대출을 위해 운영해온 50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2차 협력사 현금지불 지원용 펀드 500억 원을 추가한다.

그간 포스코는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왔지만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2차 협력사에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협력사가 무이자로 포스코 상생협력 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30일 이내에 2차 협력사에 현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포스코는 2차 협력사에 현금지불 비중을 높이는 1차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금결제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휴가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족해지는 업무시간도 기존 직원들의 연장 근무로 충당하지 않고, 신규 인력으로 채워기로 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맛속 냉각 방식이라... 더 맛있다



대우위니아가 '2018년형 덤채'를 16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맛속 냉각 방식에 친환경 '맛속 바이오(Bio)' 소재를 탑재했으며, 다양한 식품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사용자를 위한 '스페셜 디(d')존'을 강화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강화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달성해 전년 모델과 비교해 최대 28 ~ 30%까지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대우위니아

'소형SUV' 싸움에 등터진 '경차'

지난달 6중 총 1만3855대 판매
48% 증가... 코나·스토닉 출격
모닝 4.6%·스파크 26.3% 감소
7월 1만대 아래로 푹 떨어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형SUV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차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 소형 SUV 6종의 판매량은 총 1만385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형SUV인 코나와 스토닉이 본격 출격되기 전인 전월 대비 약 48% 증가한 수치다. 코나, 스토닉의 출시로 판매가 줄 것이라 우려했던 쌍용자동차 티볼리는 지난달 4479대를 판매해 소형 SUV 시장 1위를 지켰다.

반면 지난달 경차 부분의 판매량은 급격히 축소됐다. 기아차 모닝은 7월 54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고, 쉐보레 스파크도 42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감소했다. 두 차종을 합쳐 작년 월평균 1만5000여 대였던 경차 수요가 1만 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소형SUV가 대세가 되면서 경차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다.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스토닉의 등장으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업체별로 소형 SUV 할인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차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가격경쟁력이 힘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소형SUV 경쟁에는 앞다퉀 뛰어들고 있지만 대형SUV 모델 확대에는 다소 소홀한 모습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은 대형 SUV는 현대차의 맥스쿠루즈, 기아차의 모하비, 르노삼성의 QM6, 쌍용차의 G4 렉스턴 등으로 모하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하비의 경우 2008년 처음 출시된 후 오랫동안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후화됐다는 지적이다.

대형SUV 시장에서 수입차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수입 대형SUV의 경우 국산 대형SUV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포드 익스플로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3288대가 판매됐으며 지난달 전체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억 원이 넘는 랜드로버의 레인저로버는 올 상반기에만 총 1413대가 팔렸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기아자동차 '스토닉'

현대자동차 '코나'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이번주 이동 3사에 통보

과기정통부 강행... 이동사 법적 대응 고민

정부가 다음 달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조정을 강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동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동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가 하락을 우려한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에 주장했던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시행 일정도 2주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사의 반대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신규 가입자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소급적용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부가 고객과 이동사 간

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6조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방법을 규정 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도 2주가량 여유를 줬다. 애초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 3사는 공문을 받은 반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동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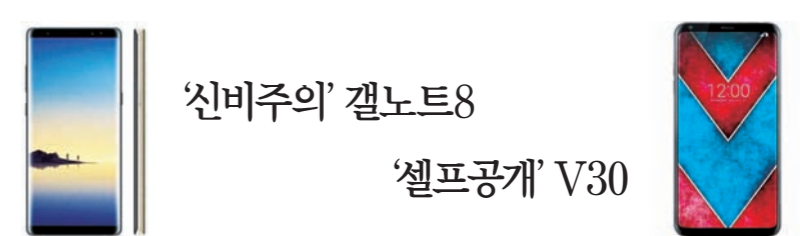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었던데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제 담합,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 점검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이동사 고위 관계자는 “중재인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조치”라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고 하소연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25% 요금할인의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범근 기자 nova@

	통신업계	정부
年 3000억 원대 손실 불가피	선택 약정 고지 의무화 시 손실 폭 더 커진다.	마케팅비 감소, 무제한 요금제 증가 등으로 예산할 수 없다.
할인율 5%	현 할인율 20%의 5%인 1%포인트만 인상 가능	전체 5%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민간 기업 경영 침해 여부	민간 기업에 정부가 요금 인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파는 공공재이며, 국민 권익이 우선이다.



'신비주의' 갤럭시노트8

'셀프공개' V30

삼성 마케팅부터 승부수 LG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두 업체가 서로 다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LG전자는 3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IFA 2017' 개막 전 날 V30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V30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셀프 공개하고 있다. 8일에는 초정장을 통해 V30의 디자인 일부를, 10일에는 전·후면 카메라 정보를 공개했다. 14일에는 V30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알렸다.

LG전자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V30은 18대 9 풀비전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중 최고 수준인 F1.6의 조리개 값과 글라스 소재 렌즈를 적용한 차세대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다. 또 기존 V 시리즈에서 선보인 세컨드 스크린 대신 '플로팅 바'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화면이 항상 켜진 상태를 유지하는 '올웨이즈 온'을 탑재했다.

LG전자가 이처럼 V30의 정보를 셀프로 공개하는 까닭은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갤럭시노트8, 아이폰8 등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접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잘못된 정보의 확

산을 막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 기대치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노트8'은 제품 사양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 스펙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홍보한 적은 없지만, 해외 IT전문 매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스펙이 유출되고 있다.

유출된 '갤럭시노트8'의 사양은 18.5대 9 화면비율의 6.3인치 슈퍼아몰레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갤럭시노트8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듀얼카메라를 탑재한다. 갤럭시노트8 듀얼 카메라는 1300만 화소 광각렌즈와 1200만 화소 망원 렌즈로 구성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을 9월 15일 출시하고 이동 3사와 9월 1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LG전자도 V30을 같은 날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LG전자가 신제품 공개 2주 후 금요일에 제품을 출시해온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15일 출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늦은 여름휴가... “싸게 떠나요”

항공사, 추석연휴 전후 최대 40% ↓
인천-후쿠오카 왕복 18만7900원

황금연휴인 추석 전 저렴하게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할인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미주 등 총 19개 노선에 대해 '추석연휴 전후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요금은 정상운임의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이다.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왕복통액 최저 운임 기준 18만7900원부터, 인천-홍콩, 인천-사이판, 인천-하와이, 인천-LA 노선은 각각 31만4800원과 38만7300원, 69만8400원, 76만84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특가 항공권은 추석연휴 기간을 제외한 9월과 10월 사이에 출발하는 노선이다. 특가 대상은 △일본 6개(인천-나리타/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오기나와/삿포로) △중국 2개

(인천-베이징/푸둥) △동남아 3개(인천-홍콩/방콕/호찌민) ▲대양주 2개(인천-시드니/사이판) ▲미주 6개(인천-LA/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하와이) 등이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추석 연휴 직전(9월 20일~28일) 국내선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편도 기준 3만~5만 원 수준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10월 7일 이후 제주를 떠나는 좌석이 일부 남아 있지만 연휴 기간 중에는 제주발 티켓이 매진되어 사실상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외선의 경우 필리핀행 항공권에 대해 14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할인 판매 중이다. 탑승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편도 기준 인천-마닐라 노선은 최저 9만 원대, 인천-세부 노선은 10만 원대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

1회 충전 580km 주행... 3000만원대 '수소차' 나온다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後〉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 내일 공개

이제 친환경자동차는 시대의 흐름이다. 자동차 업계에서조차 순수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예고하고 나설 정도다. 전문가들도 환경규제 강화와 자율주행차 개발 등으로 내연기관차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도 친환경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타이틀을 거머쥔 현대차는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주도권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 디자인 17일 공개...수소차 부품공장도 신축 = 17일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 디자인을 여의도수소전기하우스에서 공개한다.

당초 현대차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내년 2월 차세대 수소차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부진 심화와 신성장동력 부재 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침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핵심 분야 경쟁력 향상에 나서면서 차세대 수소차 공개도 6개월 이상 앞당겼다.

이번 차세대 수소차 공개를 통해 현대차는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밀린 수소차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인 투싼ix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에 따른 가격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판매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후발주자인 도

내년 출시 예정서 6개월 앞당겨 핵심부품 생산 전담 공장도 신축 친환경차 주도권 확보 경쟁 나서

日 도요타 이어 현대도 양산 돌입 2025년 시장 규모 50만대로 확대

요타에 뒤처지는 모습이었다. 투싼ix가 출시된 이듬해인 2014년 선보인 도요타의 미라이가 성능이나 가격경쟁력에서 투싼ix를 뛰어넘은 것이다.

판매 실적면에서도 현대차 투싼ix는 도요타 미라이에 밀렸다. 도요타 미라이가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708대(수소차 시장 점유율 71.7%) 판매된 반면 현대차의 투싼 수소차 판매량은 20대(1.1%)에 불과했다.



현대차 FE 수소전기차 콘셉트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는 미라이를 충분히 넘어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운행 거리도 최대 580km로 늘렸다. 차량 가격도 6000만 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포함하면 국내 실구매가는 3000만 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8일부터 총주 친환경차부품 전용생산단지에서 수소차 핵심부품 생산을 전담할 공장을 신축하고 대량생산 체제도 구축했다.

◇수소차 둘러싼 글로벌 업체 간 경쟁도 치열=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 대다수 완성차업체가 자체 경쟁력을 갖춰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고, 이때

부터 관련 시장이 성장 단계에 진입해 2025년에는 50만 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수소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혼다가 클라리티 퓨얼 셀(CLARITY FUEL CELL) 양산에 들어갔다. 혼다의 수소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20km를 주행, 수소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이들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제너럴모터스(GM), BMW, 포드, 등도 수소차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후발주자인 만큼 합종연횡을 통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GM은 혼다와 수소차에 들어갈 연료전지를 2020년부터 미국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협력을 시작한 GM과 혼다는 현재 수소차 엔지니어링 팀을 사실상 통합 운영하고 있다. 특히도 공유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 다임러와 포드, 닛산도 비슷한 시기에 수소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도요타도 BMW와 연료전지(FC) 시스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1개 양산용 모델을 2020년 이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소차 시장의 글로벌 양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POCARI SWEAT

포카리스웨트로 나는 지금, LIVE

30th Anniversary POCARI SWEAT MOVE, LIVE, SWEAT

POCARI SWEAT × TWICE

전기차와 '친환경차' 패권 경쟁 주행거리 '0' 가격·충전소는 'X'

5분이하 충전 400km이상 주행 전국 충전소 6곳... 올해안 16곳

미래 친환경차의 패권을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은 수소연료전지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 BYD 등은 순수전기차(EV) 시장을 주도하며 친환경차 시장의 대세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쟁 초반에는 수소차, 전기차의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상용화를 대비한 충전 인프라와 가격에 힘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차는 올해 1월 완성차, 에너지 기업 등 13개 업체로 구성된 '수소위원회'의 공식 회원사로 가입했다. 도요타, 혼다, BMW 등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과 손잡고, 수소차로 친환경차 시장의 패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소위원회는 수소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청하며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다.

친환경차의 패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장단점이 극명하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전기차 대세론이 튀어오르고 있지만, 일본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소차의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에 비해 긴 주행거리다. 현대차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수소차 모델 '투싼ix'는 3분 충전으로 415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전 시간도

5분 이내로, 완전 충전하는 데 수시간 걸리는 전기차에 비해 훨씬 짧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도 높고, 연료 무게도 가벼워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 등 상용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단점도 뚜렷하다. 고압 수소탱크와 백금을 사용한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있는 데다, 대중화 전 단계라 높게 책정된 가격은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현대차 투싼ix 수소차의 경우 85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도요타가 출시한 미라이는 미국에서 5만7500달러(약 65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차의 가격을 5000만 원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수소차 보조금 관련 지급안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소비자들은 3000만 원대 이하로 수소차를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경우 이미 보조금 혜택을 포함해 최소 2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선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초도 물량이 완판된 쉐보레 '볼트 EV'가 그 주인공이다. 보조금 지급안이 유지된다면 평균 2000만~4000만 원 선에서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수소차 대중화의 큰 걸림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수소차 충전소 수는 6곳이다. 올해까지 전국에 수소차를 310대 보급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1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전국 1320기에 달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최근에 180여 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더해졌고, 향후 3년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수는 최대 3000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반면 수소차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곳 정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도요타 '미라이'

현대차 '투싼ix'



KB가 디지털에게 전하고 싶은 첫번째 이야기

인공지능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세상
아빠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마음까지 담아주세요

365일 36.5°C
KB 디지털금융

유통명장을 찾아서 조판기 롯데주류 상품개발팀장

“청량·깔끔한 맛 ‘피츠’ 소맥에도 좋다 입소문”

〈소주+맥주〉

“피츠는 가볍고 시원 상쾌한 음용감에 깔끔한 맛을 구현한 차별화된 맥주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의 판을 흔들겠다”며 야심차게 세상에 나온 롯데주류 ‘피츠 슈퍼클리어(이하 피츠)’를 개발한 롯데주류 상품개발팀 조판기 팀장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맥주 시장 1, 2위인 오비맥주와 하이트를 겨냥해 6월 출시된 피츠는 알코올 도수 4.5도로 라거 맥주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어떤 음식과 곁들여도 부담 없는 단체용 술로 소개됐던 피츠는 소맥(소주+맥주)으로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7월 기준 1500만 병(330ml 기준) 판매를 돌파했다. 이는 수입맥주의 공세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온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조 팀장은 피츠의 개발 배경으로 “롯데주류의 2021년 목표인 맥주 업계 2위, 점유율 25%를 달성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맥주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젊은 맛은 70%, 풍부한 맛은 30%로 양분화되어 있어 풍부한 맛을 내세운 클라우드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맥주 시장이 다양하고 새로운 맛을 찾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조 팀장은 피츠 개발을 위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맥주 시장에 주목했다. 일본 맥주 시장 발전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맥주 시장은 산뜻하고 젊은 맛의 맥주가 레귤러(스탠더드) 맥주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조 팀장은 “현재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젊은 맛 레귤러 맥주인 카스와 하이트는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로서는 기존 제품과 비슷하면서도 차별성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기존 맥주들이 가볍고 시원·상쾌한 음용감을 중요시했다면 피츠는 여기에 잡미를 얹어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레귤러 맥주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스와 하이트는 일본의 발표주보다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다”는 그는 “기존 맥주는 하이그래피티(HG) 공법을 이용해 물에 탄 싱거운 맥주라면 피츠는 오리지널그래피티(OG) 공법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레귤러 맥주”라고 국내 맥주가 맛없다는 부정적인



조판기 롯데주류 상품개발팀장이 야심차게 개발한 ‘피츠 슈퍼클리어’ 맥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주류

3000명 데이터 바탕 밸런스 조정 어떤 음식과 곁들여도 잘 어울려 4년후 업계 2위·점유율 25% 목표 ‘맛 없다’ 국산 맥주 인식 바꿀 것 ‘슈퍼 프리미엄급’ 맥주 만들고파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레귤러 맥주 시장에 신제품으로 도전장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 팀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 분석을 하다보니 클라우드처럼 시장 경쟁의 축을 바꿀 수 있는 열정이 생겼다고 한다.

조 팀장은 “회사 직원들은 클라우드의 영향으로 진한 맛을 선호하는 반면 소비자 조사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며 “실제로 피츠가 만들어지기까지 레시피 검증에만 20여 차례가 넘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3000여 명의 데이터를 거쳐 밸런스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슈퍼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정용진의 제주 사랑, 공항 면세점으로 이어지나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제주도 사랑이 제주공항 면세점으로까지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면세점업계 따르면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 이어 후속 사업자가 누가 될지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2014년부터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끊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결국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한화갤러리아는 20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이달 말 사업을 철수키로 했으나 현재 한국공항공사 측이 후속 사업자

한화, 특허권 반납... 후속사업자 어디?

이마트 3개점 운영·제주소주 인수 등 제주에 공들이는 신세계 유력 후보로 경쟁자 롯데는 독점 사업자 부담



를 선정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력 후속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이전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뜰이나 사드 보복 후유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롯데가 적자 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제주공항 면세점에 또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제주에 시내면세점이 없는 신세계 면세점이 사업권을 이어받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당장이야 사드 사태로 적자가 분명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 여기에다 정용진 부회장이 제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진출 배경으로 꼽힌다.

신세계그룹은 1996년부터 이마트 제주점을 낸 이래 신제주점과 서귀포점 등 3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 부회장이 제주도 기반 소주회사인 제주소주를 인수하고 브랜드명을 ‘푸른밤’으로 바꾸며 제품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제주소주를 제주도 전역으로 유통하고 향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유통을 확산할 예정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제주공항 한화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한화 이전에 면세점을 운영했던 롯데가 거론되고 있으나 독점 사업자라는 점과 사드발 후유증이 가장 크다는 점 등이 부담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제주소주를 인수하는 등 제주지역 사업에 공을 들이는 신세계가 면세 사업 규모를 키우고 제주 면세시장에 새로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유력한 후속 사업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ran@

품목 많아진 렌탈시장, 도전자도 많아졌다

정수기·안마의자에서 유아용품·피부관리기까지 1인 가구 증가로 수요 늘어 백화점·이커머스도 가세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렌탈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도 고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렌탈로 마련하려는 수요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렌터카, 정수기, 안마의자 등으로 편중됐던 렌탈 품목도 유아용품, 모임공간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백화점, 이커머스, 홈쇼핑 업체까지 렌탈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현대렌탈케어는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6%나 늘었으며,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 연말 가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렌탈케어는 백화점식 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는 올해 총 150억 원을 투자해 서비스 관련 인력 및 조직을 확대했으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서비스 개선 로드맵’ 마련에도 착수했다. 올 상반기 40여 개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

를 개설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사무소를 10곳가량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렌탈케어는 2020년까지 가입자 수 70만 명을 보유한 중견 렌탈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진 현대렌탈케어 영업본부장은 “현대백화점과 현대리바트 브랜드 인지도 확대 및 고객 접점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 역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품 영역을 생활밀착형 서비스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간 생활 서비스 및 렌탈 전체 품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수기 188%, 비데 167%, 안마의자 50% 등이었다.

SK플래닛 11번가는 지난해 6월 렌탈 카테고리를 오픈한 이후 1년 만인 올해 6월 기준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수기가 전체 비중에서



현대렌탈케어는 지난달 15일 현대시티를 가든파인브릿지 지하 1층 광장에서 생활가전브랜드 ‘현대큐밍(Quming)’ 제품의 첫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현대렌탈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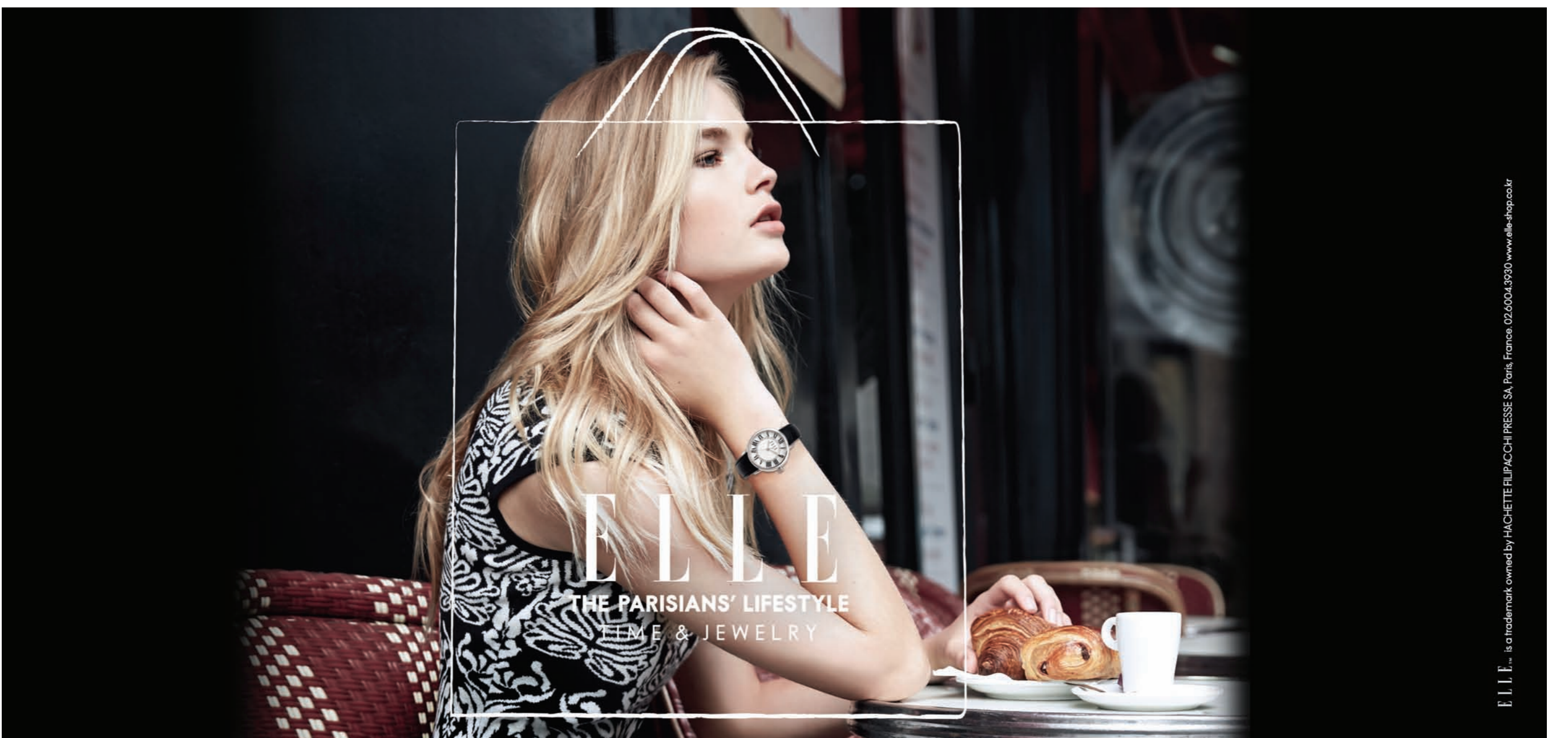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신청 비중이 약 40%까지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정용 피부관리기인 ‘LED 마스크’ 수요가 꾸준히 새로 늘고 있다.

기존 렌탈 시장에서는 가격과 혜택이 고객들에게 공개돼 있지 않았던 데 비해 온라인 채널에서는 렌탈료 및 혜택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고객 신뢰도를 높인 덕분에 정통 오프라인 시장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 박태아 홈&카서

비스 담당 매니저는 “온라인 채널에서는 원하는 렌탈 키워드, 종류, 업체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11번가에서 이용할 경우 추가적 할인 혜택 등을 받으며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11번가 ‘홈&카서비스’ 내 ‘렌탈’ 카테고리라는 본사가 직접 입점하거나 공식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입점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 및 케어를 합리적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제2영동고속도로 뚫린 지 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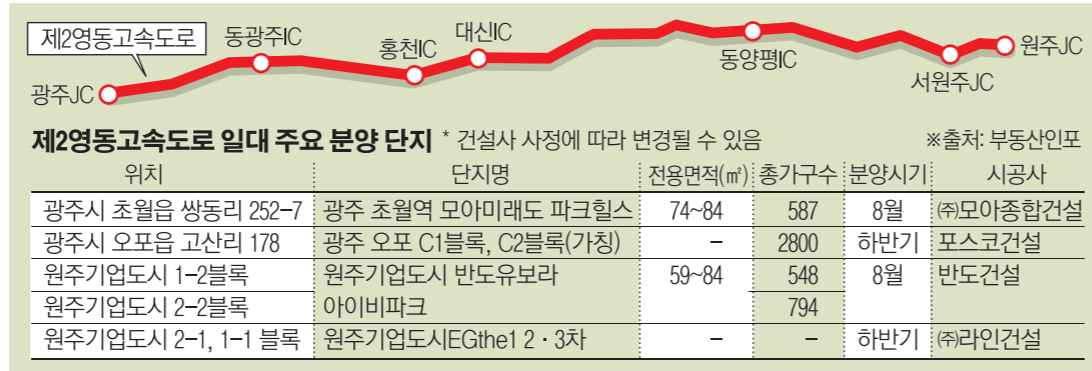
광주~원주 집값도 高速으로 '씹씹'

2007년 고점 찍은 後 하락세 경기 광주 개통 소식 힘입어 2015년부터 상승 지속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연장사업도 호재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근 분양단지 관심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경기 광주~여주, 강원 원주 일대의 집값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광주는 제2영동고속도로 호재와 맞물려 2015년 753만 원이던 3.3㎡당 평균 매매가가 2016년 792만 원, 2017년 7월 797만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광주는 부동산 시장 거품이 일던 2007년 3.3㎡ 매매가가 855만 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세를 이어오다 3년 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여주도 올해 7월 595만 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고점(596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원주는 534만 원으로 현재 고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 광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이어주는 대형 민자사업으로, 1조5978억 원이 투입됐으며 총 길이가 59.95km에 달한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원주까지 54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에서 강원도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시세 역시 만만치 않게 상승했다.

제2영동고속도로 효과는 청약경쟁률에서도 나타났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이어지는 서원주 IC와 차로 10분대 거리에 위치한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경우 7월 분양에서 최고 18.71 대 1, 평균 6.7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태형이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20분대 이상 거리 차이가 나는 원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6월 분양에서 평균 2.65 대 1의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일대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연장 사업의 영향도 받는 지역이라 향후 높은 미래가치가 예상된다"며 "이들 지역은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도 비껴

간 지역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2영동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인 경기 광주와 강원 원주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는 모아종합건설이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서는 올 하반기에 포스코건설이 광주 오포 C1블록, C2블록(가칭)의 공급을 계획 중이다. 원주기업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라인건설은 원주기업도시 2-1블록과 1-1블록에서 각각 '원주기업도시EGthe 1 2·3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최순실 낙하산 논란' 박창민 사장 1년 만에 불명예 퇴진

대우건설 매각 차질 빚어지나

송문선 CFO 체제...경영공백 최소화 내달말 매각 공고...산은 "예정대로"



자회계를 열고,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은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7월 1일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확인 결과 이 본부장이 자신들과 소 등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창민(사진) 대우건설 사장이 사퇴하면서 매각 일정에 차질도 우려된다.

16일 대우건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아오던 박 사장은 14일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고, 선임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대우건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각에서 박 사장 사임과 대우건설의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CEO 리스크'가 생기자, 이로 인해 진행 중인 매각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자진 퇴진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압박감으로 볼라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우건설 내부 관계자는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박 사장은 물론 대주주인 산은은행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뒤 상임고문을 지내다가 작년 8월 대우건설 사장에 취임했다. 앞서 건설기업 노조는 9일 서울 중로구 복춘로 감사원 앞에서 기

난해 7월 1일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확인 결과 이 본부장이 자신들과 소 등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은 이번 박 사장의 사퇴로 송문선 CFO 경영 체제에 돌입, 박 사장 사임에 따른 경영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측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해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며 조직과 수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목! 이곳



SK건설 '공덕 SK리더스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뷰 갤러리'에서 8·2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공덕 SK리더스뷰'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한 시민이 분양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공덕역 超역세권...實수요자 발길 줄이어

8·2後 첫 서울 분양...내일 1순위 청약 대출규제 포함돼 상담시간 2~3배 늘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공덕 SK리더스뷰' 견본주택, 11일 문을 연 견본주택이지만, 주중과 광복절 휴일에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현뉴타운 마포포6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의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 3일 1만2000여 명이 몰렸고, 14일에도 700여 명이 방문했다.

분양 관계자는 "예전처럼 줄을 지어서 유닛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마포구와 영등포구 실수요자 위주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문객 대부분이 청약 상담 코너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존에 개인별로 약 10분가량 걸렸던 상담 시간이 현재 20~30분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14일에는 견본주택 유닛을 보려는 대기줄이 없는 대신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출규제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8·2 대책으로 마포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LTV가 최대 40%까지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신이 이 정도 대출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가장 많다"며 "청약자 개인별로 기존 대출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이 다른 만큼 혼란스러워하는 수요자들을 상대로 대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지는 8·2대책 이후 첫 서울 분양 단지로 마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최대 40%(사민·실수요자 50%)까지만 가능하다. 주택담

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30%로 내려간다. 이 단지의 8억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중도금 집담대출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 개인대출, 잔금 등 모두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는 이 단지가 공덕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에 그나마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공덕역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를 2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어 주거 여건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당초 '공덕 SK리더스뷰'는 지난해 11·3 대책에 등장할 철거 이후 신규 분양이 가능하다는 새 규정 등으로 분양이 밀리기 시작하며 거의 1년 가까이 청약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어졌고, 최근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인근 단지 같은(84㎡) 평형대 시세(9억5000만 원)를 감안하면 초역세권 8억 원대 아파트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84㎡ 기준층 기준 3.3㎡당 평균 2358만 원으로 적게는 7억4000만 원, 많게는 8억 원이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한 30대 부부는 "대출규제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공덕역 초역세권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가 방문했다"고 말했다.

'공덕 SK리더스뷰'의 1순위 청약은 17일 진행된다. 지상 29층, 5개 동, 총 472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안산

투자 선도지구 5곳 지정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 등이 투자선도지구 5개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들 지역에서 펼쳐나갈 전략사업도 선정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월엔너

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Time is our tradition.

COI COMPANY Co., Ltd 0216403-2112 www.grovana.co.kr

롯데백화점 본점 021772-3308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12164-6191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9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0216965-2637 롯데아울렛 광명점 0216226-2142 롯데아울렛 광교점 0318064-2168 롯데아울렛 부어점 041435-2608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0212283-2118 현대아이파크백화점 용산점 0212012-4146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37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1 이타입월드 021313-4108 타임갤러리아 0708265-5528 이노아이 0216002-6123 시계상사 031441-0802 사본워치 031463-9788 타임24 031931-5555 WB(워치보이) 07018632-5300 피크타임 031506-3886 타임플러스점 031575-1866 패션이탈랜드(에전) 0421280-9117 복원처 0431223-1333 명성시계 051253-5354

[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점 0212136-2646 두터면세점 0213399-9372 동화면세점 021688-6680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18370-4072 신리면세점 서울점 0212230-3997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064780-7669 SM면세점 서울점 0212120-6027

SPECIALTIES 1728.9552

트럼프 失政에... 경제 자문위원들 잇따라 절교 선언

백인우월주의 폭력방조 의혹·능력대응에 재계 반발 거세
머크·인텔·언더아머 CEO 등 대통령 직속 자문단서 사퇴
앞서 테슬라·디즈니 수장도 파리협약 탈퇴 결정에 물러나
“인종주의는 악” 진화 나서... 출사퇴에 “대체 인물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폭력시위에 대한 비판을 망설이다 역풍에 휩싸인 가운데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들이 잇따라 절교를 선언하고 있다. 잇단 실정(失政)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경제력자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인 다양성을 간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 3대 제약회사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단인 제조업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레이저는 제조업 자문단에서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프레이저를 시작으로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CEO와 스포츠용품 업체 언더아머의 케빈 플랭크 CEO도 제조업 일자리위원회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튿날인 15일 오전에는 마리오 롱기 전 US스틸 CEO와 스코트 폴 제조업연합회(AAM) 회장도 해당 자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총연맹(AFL-CIO)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리처드 트럼카와 테아 리가 제조업 일자리위원회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주말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 유혈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능력대응과 미온적 태도에 항의해 자문위를 사퇴한 미국 기업인은 이틀 새 6명으로 늘었

트럼프 자문단에서 사퇴한 미국 기업인들

자문위	기업명	사퇴CEO
제조업일자리위원회	머크	케네스 프레이저
	언더아머	케빈 플랭크
	인텔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미 제조업연합회	스콧 폴
	미 노동총연맹	테아 리
전략정책포럼	우버	트레비스 칼라닉
	디즈니	밥 아이거
	테슬라	엘론 머스크



다. 이밖에 월마트와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 펄시코의 인도 출신 CEO 인드라 누이와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펠드 CEO도 트럼프의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다.

제조업 부활과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권을 잡은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미국 유력 기업 CEO들을 비롯한 재계에 내로라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각종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미국 제국도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정책 등 친 기업 정책을 환영하며 트럼프의 자문단

합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반(反)미인 정책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트럼프의 잇따른 실책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두려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 정책의 국제적 틀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 방침을 선언하자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전략정책포럼'에 소속됐던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월트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가 자문단에서 사임할 뜻을 표명했다. 트레비스 칼라닉 우버

CEO는 반(反)미인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전략정책포럼 자문단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살러츠빌 사태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호의적이었던 미국 재계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오락가락 말 뒤집기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14일 프레이저 머크 CEO가 자문단 사퇴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트위터에 “프레이저는 바가지 약값을 내릴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이틀 만에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공개 천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버지니아 주 살러츠빌에선 네오나치와 쿠클럭스클랜(KKK) 등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 진영의 여성 시위대 1명과 경찰 2명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KKK

등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세력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에 맞섰던 반대편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이날도 트럼프는 주요 기업인들의 자문단 출사퇴가 일어나자 “그랜드 스탠다(특별관람석)의 관객은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을 대체할 사람은 많다”고 일갈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살러츠빌 사태로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극우성향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해임될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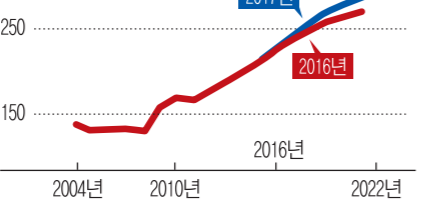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여론 악화에 대응해 말에 아끼다 능력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배넌이 있으며 트럼프가 이미 수개월간 배넌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배넌에 대해,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의 불화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근간인 극우 보수주의를 구현하며 자리를 보전했으나 이제는 트럼프마저 등을 돌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IMF “中 부채의존 경제성장 위험 수준” 경고

“성장을 맞추려 뒤편지 할 태세
대출로 연명 소비기업도 문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 전망치 추이 (단위: %)
※출처: IMF 웹사이트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신용성장이 위협한 궤도에 있다고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연례 중국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정부가 성장을 위해 ‘위험한 수준’에 오른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종전 전망치인 6.2%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중기 경제성장도 낙관했다. 2018~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종전의 평균 6.4%에서 높은 것이다.

그러나 IMF는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경제규모를 2010년 수준의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빛에 의

존하는 성장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 당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중국의 부채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IMF는 오는 2022년까지 중국 GDP 대비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이 29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의 235%에서 급등한 것은 물론 IMF가 이전에 앞으로 5년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70%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대조된다. IMF는 “국제적인 경험은 중국의 현 신용 궤도가 파괴적인 조정 리스크 증가를 수반하는 위험

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강력한 단어로 경고했다. 이어 “이런 높은 부채 수준은 중국 정부가 은행간 시장에서 일어날 잠재적 혼란이나 그동안 그림자은행 부문의 빠른 확장을 주도했던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신뢰 상실 등에 대응할 재정적 여지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이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43건의 신용 열풍 사례 중 5건만이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

특히 IMF는 중국에서 이른바 ‘좀비기업(Zombie Company)’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국영기업이 대부분인 이들 좀비기업은 재무적으로 불건전한 상태임에도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리면서 연명하고 있다. 또 좀비기업들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생산해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을 일으켜 경기회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좁은아시아

GM, 중국 상하이차 손잡고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7인승 ‘콘페로’ 공개... 대기업 주력 車보다 30% 저렴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상하이자동차그룹(SAIC)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샤지신문에 따르면 GM과 SAIC의 합작사인 상치통용우링(SGMW)은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인도네시아 국제오토쇼’에서 전략차종인 소형 미니밴 ‘콘페로(Confero)’와 ‘콘페로S(Confero S-사진)’을 공개했다. 고급 인테리아임에도 동급의 일반 기업 주력 차종보다 30% 저렴하다.

GM과 SAIC는 인도네시아에서 SGMW를 통해 ‘우링(Wuling·五菱)’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000만 명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손꼽히지만 일반 기업들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

매년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가 차지하던 인도네시아 국제오토쇼의 메인홀에 우링의 대형 부스가 설치된 것



중서 성공 ‘우링’ 앞세워 제도전 “소형차 추가...내년 4만대 판매”

도 GM과 SAIC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보인 콘페로와 콘페로S는 가족, 친구와의 나들이를 좋아하는 현 지인에게 인기 있는 7인승이다. 뒷좌석에 에어컨을 갖춘 일부 모델은 인테리아를 가족으로 마감해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SGMW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차’라며 기존 소형 미니밴보다 내부모듈을 넓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대 무기는 역시 가격이다. 콘페로 가격은 1억3000

만 루피아(약 113만 원)로, 동급인 도요타의 아반자(AVANZA)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SGMW는 1억 루피아 미만의 소형차 모델도 추가해 내년에 4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GM이 단독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시절에 연간 판매가 1만 대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목표다.

GM은 승산이 높은 시장에만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했으나 SAIC와 손잡고 재기를 꾀한다. 우링은 2000년대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브랜드다. 중국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도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이 차는 인도네시아 자바 주에 세운 신공장에서 최근 생산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3년 만에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는 약 4% 늘어난 110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문의 02-325-5676 문학의숲 수필선

맛갈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겨우와 겨우 사이를 들여다보다

이숙영 수필집
보석을 찾는 마음

이숙영 지음 | 15,000원 | 276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릴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형제·시댁 식구·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고향 생활을 ‘맛갈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 나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박덕규(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삶이란 보석을 찾았다
이숙영의 수필은 작위적인 구성이나 지나친 정서의 표현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다. 일상적인 문법에 충실하면서 소박한 기록과 절제된 정서로 만들어진 글들은 수필 읽기의 큰 미덕이다. 꾸밈이 없는 글쓰기, 그것은 이숙영 수필이 지향적이고 매력이다. 화려한 걸치레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고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힘이 있다.
-김동혁(문학평론가)

“발상의 전환 통해 16나노 벽 넘었죠”

SK하이닉스팀, 세계 첫 낸드플래시 14nm TLC 양산

최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낸드플래시 14nm(나노미터) TLC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2D에서는 16나노가 최종'이라는 업계의 인식을 깬 결과다.

조명관 연구위원, 이경복 수석, 허황 수석, 김현규 수석, 임정훈 책임 등 5인으로 이뤄진 14나노 TLC 양산팀은 '2017 수펙스 추구상 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다. 수펙스 추구상은 SK 그룹이 한 해 동안 임직원 중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이나 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들에게 프로젝트 당시 상황에 대한 뒷얘기를 들어봤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팀원들 모두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빨리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또 2D에서 3D로 전환하는 시기였던 만큼, 2차원 제품 개발의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테크놀로지로 하고 하는 16나노를 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엔지니어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경복 낸드개발본부 수석은 프로젝트 초기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회상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낸드플래시 제품 개발 추세는 2D에서 3D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3D 낸드 플래시는

조명관·이경복·허황 등 5인 수펙스 추구상 이노베이션상

최근 반도체시장 3D 대체 불가 2D 제품 수요에 확신 가져

기존 개발팀 20% 인원이었지만 탄탄한 팀워크로 프로젝트 성공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회사의 대부분 역량을 3차원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D 제품 수요 역시 바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조명관 낸드개발본부 연구위원은 “회사에선 2D 공장을 활용한 수의 극대화 방안이 필요했다”며 “그래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특히 더 까다로웠던 것은 새로운 장비나 공정 변화 없이 기존 개발팀의 20%에 불과한 인원으로 진행한 탓이었다. 김현규 미래기술연구원 낸드 코어 TF 수석은 “프로젝트를



“2017 수펙스 추구상 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한 SK하이닉스 14나노 팀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현규 수석, 허황 수석, 조명관 연구위원, 이경복 수석, 임정훈 책임. 사진제공 SK하이닉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성공이 보인다면, 그게 불씨가 돼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것 같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로젝트에 열중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했다.

허황 낸드개발본부 수석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누군가가 작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을 구체화해 돌파구로 삼았던 사례가 몇 가지 있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했다. 팀워크도 탄탄했다. 이경복 수석은 “팀원 간에 신뢰감이 어

는 팀보다 강했다”며 “누군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 불평하더라도 서로 간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세계 최초로 14나노 TLC 양산에 성공하고, 수펙스 추구상 이노베이션상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임정훈 ETCH 기술그룹 책임은 “혁신을 일구기 위한 눈앞에 보이는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찾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늘 보이는 것 말고,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길을 찾는 게 바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헤드헌팅 1호 특허심판관 특허청, 최지명 변리사 임용

정부가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진행해 온 헤드헌팅에서 1호 특허심판관이 탄생했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전기·통신분야 특허 전문가인 최지명(41·사진) 변리사를 특허심판관 10부 심판관으로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심판관 10부 심판관은 반도체 장비, 통신, 원자력기술 등 복합기술과 관련된 특허 여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관리자이다. 최 심판관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법무법인, KT 특허팀장, 코웨이 IP(지식재산권) 팀장으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관련 분쟁조정 분야를 경험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다.

특히 KT의 1호 변리사로서 통신분야 특허경영의 기틀을 세우고, 특허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15년 이상 전기·통신 등 복합기술 특허 분야에서 일했다.

이미경 前 민주당 의원 KOICA 이사장에 내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이미경(67·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코이카 이사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코이카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성평등본부장을 지냈다. 5선 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공천 배제 결정을 받고 불출마했다. 김인식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인사로 밝혀져 지난 4월 사직했으며 현재 공석이다.

“퇴임후 대형 로펌 가지 않겠다...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 박한철 前헌법재판소장 약속 지켰다

2011년 국회 청문회서 발언 올해 1월 임기 마치고 물러나 내달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한다.

박 전 소장은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

리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국회 청문회 당시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회 질의에는 없었지만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하겠다고 자인들에게 말해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소장은 1983년 김사로 입관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검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그는 1년간 감언장담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3년부터 3년여간 소장을 지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5대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日 교토 한국역사 유적지 안내서 가져가세요” 배우 송혜교·서경덕 교수의 광복절 특별선물

단바방간기념관·윤동주 시바... ‘안내 책자’ 교토에 1만부 배포 관광객 많은 민박집 10곳 비치

광복절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교토 편’ 안내서 1만 부를 제작해 일본 교토에 배포했다.

15일 서 교수 측에 따르면 한국어와 일본어로 제작한 이번 안내서는 단바방간기념관, 윤동주 시바, 고려미술관, 코무담(귀 무담) 등 교토 내 한국 역사 유적지에 관한 소개 및 찾아가는 법 등을 담고 있다.

서 교수가 안내서 기획을 맡고 송혜교가 제작비 전액을 후원한 이 안내서는 한국의 젊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교토와 오사카 지역 민박집 10곳에 비치됐다. 일본 정부가 기념관이나 미술관 안에 안내서 비치할 허락하지 않아 민박집을 택한 것이다.

서 교수는 “교토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만나질 정도는 한국 역사 유적지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한국어 안내서가 교토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로 관광객들이 우리의 역사 유적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수와 송혜교는 지난 3·1절을 맞아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교토 편’ 1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충칭·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윤봉길기념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안장호패미술관 등 12곳에 한국어 안내서를 만들어 기증했고 뉴욕 현대미술관, 도쿄도 박물관 등의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유지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해외 한국 역사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해 온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을 맞아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교토 편’ 안내서 1만부를 기증했다고 15일 전했다. 사진제공 서경덕 교수 연구팀

한국여성 인물사전

(176) 김임벽당(金林碧堂)

중국에까지 이름 날린 조선전기 여성시인

김임벽당(金林碧堂·1492~1549)은 조선전기 3대 여성시인이다. 시(詩)·서(書)·자수(刺繡) 삼절(三絶)로 이름을 떨친 예술인이다. 임벽당은 충남 부여에서 아버지 의성 김씨 김수천(金壽千)과 어머니 한양 조씨의 딸로 태어났다. 남편은 기계 유씨 유여주(俞汝舟)인데, 남편이 기묘사화(1519)에 연루되자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로 낙향하여 평생을 은거하며 살다가 졸하였다.

임벽당 부부는 집 근처에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에 소나무, 대나무를 심어 선취정(仙醉亭)과 임벽당(林碧堂)을 조성하였다. 또 배꽃, 복숭아꽃을 심어 놓고 완상하였는데, 그로 인해 마을 이름이 도화동(桃花洞)과 이화동(梨花洞)으로 불렸다고 한다. 현재 남당리에는 임벽당이 살았던 집터와 묘소, 부부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여 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을의 역사와 품격을 말해 주고 있다.

김임벽당은 조선전기 우리나라 3대 여성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조선시대의 문학평론가 어숙권(魚叔權)은 ‘패관잡기(裨官雜記)’라는 책에서 조선 전기의 3대 여성시인에 정씨·성씨·김씨가 있다며 각각의 시를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말한 김씨가 바로 김임벽당이다. 임벽당의 한시는 어숙권의 평가 이후 조선의 역대 한시 평론서에서 자주 거론되었다. 임벽당의 한시는 생존 시에 이미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임벽당의 시문집은 후손 유세기(俞世基·1653~1737)가 ‘임벽당칠수고(林碧堂七首稿)’로 편찬하였다. 시집

의 편찬 동기는 이렇다. 유세기의 벗 김두명이 서장관으로 1683년(숙종 9) 중국사행을 다녀오면서 중국 전경익(錢謙益·1582~1664)이 엮은 ‘열조시집(列朝詩集)’을 구입해 유세기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책 속에는 뜻밖에도 유세기의 7대조 할머니 임벽당의 시 세 수가 수록되어 있었다. 유세기의 집안에는 200여 년 가까이 보관되어 내려오던 임벽당의 자필 자수 베개가 있었던 터였다.

여기에 허균이 편한 ‘국조시산(國朝詩山)’에 수록되어 있던 임벽당의 시 두 수를 더하여 총 일곱 수를 수집하였다. 유세기는 이 일곱 수의 시에 남구만·조지검·윤증·조인수·한태동·남용의 등에게서 서문과 발문을 구하여 ‘임벽당칠수고’를 엮었다.

임벽당은 시(詩)·문(文)·서(書)·자수(刺繡)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임벽당 후손 집안의 문헌이 전쟁과 화재로 불타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면 임벽당의 주옥 같은 문학작품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임벽당이 배꽃모에 수를 놓았다는 ‘제임벽당(題林碧堂)’ 시 두 수에 대해 남구만은 “암송하면 성물(聲律)이 화평하고, 음미하면 흥취가 그윽하고 한가로워 ‘시경’, ‘이남(二南)’의 유품을 계승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세속을 벗어난 아취와 자득(自得)의 즐거움, 가난하나 검약하여 화려함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며 도연명(陶淵明)과 임포(林逋)의 작품들과 견줄 만하다고 극찬하였다.

문희순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세계적 첼리스트 마이스키, 내달 내한공연

피아니스트 딸 릴리와 듀오무대

‘장한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69)가 9월 12일 내한 공연에서 피아니스트인 딸 릴리(30)와 듀오 무대를 연다.

마이스키는 내한을 앞두고 국내 언론들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서는 무대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마이스키는 한국에서 2009년 처음 릴리와 협연 무대를 선보인 뒤 2년에 한 번꼴로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2011년에는 아들 사샤(26)와 트리오 연주를 하기도 했다.

그는 릴리를 “가장 편안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면서도 “릴리와 함께하는 무대는 더 긴장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



세계적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딸 릴리. 사진제공 크레디아

‘청산에 살리라’ 등을 녹음하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친한파 연주자로도 유명하다.

마이스키 부녀는 이번 내한 무대에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곡들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슈만의 ‘환상소곡집’ Op.73과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를, 2부에서는 폴랑크의 가곡들과 브리튼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한다. 김하늬 기자 honey@

인사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재난안전조정관 김계호 △안전정책실장 김석진 △재난관리실장 정중제 △세종부시장 류순현 △경남부지사 한경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마창환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병선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 ◆시사플러스 △편집부국장 겸 논설주간 김낙훈

부음

- ▲김영숙 씨 별세, 정연우(일간경기기 편집국 부국장) 씨 모친상 = 15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 30분, 031-781-6722
- ▲오수남 씨 별세, 윤한홍(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장모상 = 15일, 창원시 삼성

창원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55-233-8114

▲김옥수 씨 별세, 문وح치(한국문인협회 이사장)·진목(전 외환은행 미국 시카고 지점장) 씨 모친상 = 15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45분, 02-2258-5940

▲이광현(일동제약 이사) 씨 모친상, 윤진영(조영상사 회장)·송영희(서티트플렉스 대표) 씨 장모상 = 15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031-781-1502

▲오철환(주택관리사)·덕환(연천교육장)·정환(국민은행 가령남지점장) 씨 모친상 = 15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31-219-6975

▲김중찬 씨 별세, 형흥(사업)·태준(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형준(명지대 교수)·형자·문자(상명대 교수) 씨 부친상, 김선민(속명여대 교수) 씨 장인상, 이성희·한남숙·나혜영(명지전문대 교수) 씨 시부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3

기고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최중찬 칼럼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일자리 확대, 채용 늘릴 여건부터 만들자

‘에너지 착한가게’를 응원합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유난히 극성이다. 지속된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 자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대표적 상점과 부산, 대전 등 전국 18개 주요 상권 2300여 상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문 열고 냉방' 자체를 촉구하고, 여름철 상가 전기 절약 실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실천한 상가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현판을 수여한다. 8월 현재 감발 가게, 화장품 가게 등 전국적으로 약 600군데의 상가가 참여를 신청,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신청 상가는 '우리 가게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입구에 붙이고 영업을 하는 등 절전에 앞장서고 있다.

전력 공급이 어려워져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실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 열고 냉방' 금지 단속에 들어간다.

실제로 명동의 한 상가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문구와 로고를 매장 전면에 부착하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정부의 일방적 실천 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참된 기업문화로 진일보하고 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역대 최고 수준인 8650만kw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8850만kw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문 열고 냉방 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전력 소비가 최대 3~4배나 많아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로 꼽힌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에너지 절약 문화가 생활화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은 SNS를 통해 문 닫고 냉방하는 상점을 칭찬하는 릴레이 댓글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착한가게에 동참하는 상점 이름도 공개하고 있다. '에너지 착한가게'에 참여하는 상가가 많아 '문 열고 냉방 영업'을 두고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와 상가의 숨바꼭질 같은 단속 행태가 근절되고, 절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정전대란 이듬해부터 올해로 6년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문 열고 냉방'은 여전하다. 단속과 과태료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해 여름철 최대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3년 만에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듯이, '에너지 착한가게'에 참여하는 '착한 국민 의지'가 늘어날 때, 우리의 전기소비 문화가 변화하고, 전기 절약을 통한 최대 전력수요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가뜰이나 경기침체로 영입이 부진한 상가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고 '에너지 착한가게'에 참여하는 상점들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중점이 일자리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뀌었다.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아동·노인 수당 인상, 공공부문 고용 증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추진 배경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임금 상승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경제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또한 임금 상승도 문화에 전제적으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낮아졌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76%에서 2014년에는 71%로 떨어졌다. 아울러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단순 노동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연구 인력 등 지식집약적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 주도록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람보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더 잘하면 굳이 사람을 쓰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일자리 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나 인공지능보다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아울러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향후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산업 구조가 인공지능, IOT, 로봇 등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 근로자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업수당은 임시저방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게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

고 창의성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목, 교육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안식년 같은 기회를 전국민이 갖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술발전

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증대되어야 한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체제라면, 기업인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근로자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교수나 교사가 자기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형국이나 지식 산업 시대에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

고 창의성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목, 교육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안식년 같은 기회를 전국민이 갖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술발전

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증대되어야 한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체제라면, 기업인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근로자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더 크다. 관광, 의료, 유통, 스포츠, 연예 등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어렵고 일손도 많이 필요하다. 로봇, 인공지능으로 제조업 등의 생산성이 늘어나면 근로시간이 단축돼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예컨대 관광산업의 경

알쏭말쏭 불변(不變)과 만변(萬變)

38선으로 갈린 땅,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고 새로운 정당들이 난립하는 등 혼란은 갈수록 심해졌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울 합의된 이념은 바로 서지 못했다. 사회는 동탕(動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 본 백범 선생은 귀국 전날의 소회를 '不變應萬變',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변하는 것에 대응하자'고 쓴 것이다. 여기서 불변은 다른 게 아니라 민족이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본

다면 남북이 갈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좌익과 우익이 싸워야 할 이유도 없다. 혼란스러운 싸움의 원인 하나하나에 대응하여 해결하려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민족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로 뭉치는 것이 모든 혼란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김구 선생은 '不變應萬變'이라는 휘호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도 소련도 좌익도 우익도 다 언젠가는 변할 것이니, 변화하고 말 것에 흔들려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 '민족'이라는 근본이 손실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를 강하게 담은 휘호이다. '不變應萬變', 이 시대의 문제를 푸는 데에도 이 말이 유일한 열쇠가 아닐까?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와글와글



임시공휴일 파급효과 5조? "쉬는 날보다 쓸 돈이 먼저"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일하는 월요일'로 끝난 가운데 임시공휴일의 효과를 두고 유통·관광업계와 소비자 간의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2015년 8월 14일의 경제 파급효과를 추산한 결과 총 5조1600억 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숙박·음식·운송서비스업의 생산유발액은 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수를 가장 강하게 누리는 유통업계는 무산된 임시공휴일에 대

해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면 업계 실적에도 많은 개선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은 "숙박업소가 존폐 위기에 몰린 이유는 바가지 요금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수를 진작하려면 쉬는 날을 늘리기보다 근로자들이 제값 임금을 받도록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류정훈 기자 jungth216@

카드로 보는 세상



더위를 날리는 빙수. 빙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하얀 얼음 가루에 붉은 팥, 혹은 알록달록한 과일 토핑을 얹은 모습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색 빙수들이 선보이며 기존 빙수의 모습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발 모양의 아이스크림 위에 검은 짜장을 올려놓은 듯한 '짜장면 빙수'가 있는가 하면, 잔디밭의 한 부분을 담은 듯한 '잔디빙수', 과일로 비빔밥 모양을 만들어 놓은 빙수도 있죠. 먹기보다 사진 찍기에 바쁜 이색 빙수들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rpNvei

Advertisement for KEPCO Global Energy Bill. Text: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KEPCO글로벌에너지빌트'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뤄집니다! 한국전력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넘어 북미와 중미까지 확대되는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KEPCO글로벌에너지빌트' 중소기업과 상생경영으로 함께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데스크칼럼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늦어진 韓銀 부총재 인선, 차라리 더 미뤄라

“부총재는 누가 유력하십니까?”
“네, 차기 부총재는 진행중 씨가 유력 하다는데요. 성은 ‘진’이고, 이름은 ‘행중’ 쓰시는 분.”
최근 한국은행에서 꽤 자주 오가는 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장병화 전 부총재 퇴임 직전인 6월 22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차기 부총재 인선을 묻는 질문에 “최종적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한 데다,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빗댄 것이다.
한은 부총재 자리는 6월 24일 장 전 부총재 퇴임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 자리는 한은의 안살림을 도맡는 한은 2인자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통화정책(通貨政策)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타 기관의 2인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자리일 수밖에 없

는 이유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후임자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게 정상 상황은 아니다.
반면 한은 부총재 공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장차관 인선 등이 이뤄지면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권 차원에서 자기 사람이 아닌 한은 전·현직 인사로 채워지는 한은 부총재 자리가 급할 것도 없을 것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자리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한은 부총재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왕 미뤄진 인사라면 차라리 두세 달 더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통화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금융위원들이 일시에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취임한 네 명의 금융위원들이 4년 임기를 채우면 2020년 4월 20일 한꺼번에 교체된다. 장 전 부총재 후임 인선이 곧바로 이뤄졌다면 부총재 임기가 3년이라는 점에서 차기 부총재는 2020년 6월 24일 퇴임할 예정이었다. 사실

상 다섯 명의 금융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 조유의 사태를 맞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예고돼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및 금융위원을 2년가량 공석으로 두면서 4명의 금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됐고, 이 총재 취임 후엔 전임 총재와의 갈등으로 박원식 전 부총재가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네 명의 금융위원을 임명하기 전부터 새롭게 뽑는 금융위원들 중 몇 명의 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단축하지는 방안 등 여러 안이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기도 했다.
이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이고, 함준호 위원은 내년 5월 12일 임기가 끝난다. 부총재 임명을 두세 달 미룬다면 금융위원들과의 임기를 6개월 정도 벌릴 수 있고, 내년 퇴임자들과도 짧게는 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둘 수 있다. 또 2020년 4월 네 명의 금융위원 퇴임 시 기존 위원 중 일부의 임기를 조정하거나 차기 위원 인선에서 일부의 임명을 미루는 것으로 금융위원들의 대거 교체 문제를 해소할 명분도 생길 수 있다.

시급성 면에서도 아직 급할 게 없다. 31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만 당장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금통위원 한 명의 공석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13일 부총재 없이 치러진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후문이기도 하다.
앞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도 “지금 금통위원들 간에 견제차가 크지 않다. 일시적으로 6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진중섭 금융감독원장은 11월에 임기가 끝난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겠다. 금감원 역시 당면 현안은 가계부채 문제이다. 진 원장을 전(前) 정부 인사라고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1월을 전후로 차관급인 차기 금감원장과 한은 부총재를 임명하고, 내년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한은 총재 인선을 구상한다면 신정부 차원에서 금융·통화 당국자 인선을 큰 그림에서 일단락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겠다.

kimnh21c@

장효진의 이슈通
기업금융부 차장



BNK금융 지배구조의 민낯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동안 각종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최종 후보자 선정 이후에도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BNK금융은 4월 성세환 회장이 주가 조작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 공백이 이어지자 지난달 초 차기 회장을 뽑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이번 사태가 제왕적인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고, 외부 공모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지주 회장이 최대 계열사인 부산은행장을 겸직하던 구조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란해졌다. 이것이 과연 국내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지주의 회장 선출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BNK금융 회장 인선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최고경영자(CEO) 인사시스템이 과거로 후퇴한 느낌이다. 정부의 입맛대로 회장이 선출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던 시절로 돌아갔다.
이번 논란의 원인은 명확하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느슨한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때문이다.
BNK금융은 2011년 설립된 BS금융의 후신(後身)이다. BNK금융은 6년 만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등 8개의 자회사와 3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린 자산 규모 106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회사로 성장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했다.
성 회장의 경우 BNK금융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이사회 의장, 이사회 운영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을 겸직했다. 더불어 부산은행장으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되는 등

막대한 기업을 총수처럼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에 대한 견제는 미흡했다. 현재 BNK금융의 1대,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롯데그룹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주주들이 방관하는 사이 BNK금융 지배구조는 회장에 대한 권력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노릇만 했다.
허술한 CEO 승계프로그램도 논란을 키웠다. BNK금융 임추위는 특이 사항이 있을 때에만 열린다. 평소 임추위가 계열사 CEO 등 차기 회장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다르다.
이렇다 보니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공모에 16명이 무다기로 물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박재경 BNK금융 회장 직무대행과 반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뿐만 아니라 부산은행장 공모에 동시 지원하며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1차 후보를 결정할 때에는 탈락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쇼트리스트’에는 외부 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해 박재경 BNK금융 회장 직무대행, 정민주 BNK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동조합 측은 “다른 금융지주의 연령 규정으로는 탈락했을 고령(72세)인 김 전 부회장이 후보에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시위도 계획 중이다.
성 회장 구속,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BNK금융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금융회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오픈한 지배구조이다. 금융당국도 뒷집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되는 등

js62@

객석

박지혜 카위미디어그룹 홍보팀 과장



나는 오늘도 클러브를 낀다

체력을 기르고, 다이어트도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복싱에 입문한 지 1주일이 지났다.
출발기 한 세트만 해도 숨이 차고, 온몸의 근육들이 ‘살려 달라’는 듯 통증을 신호를 보낸다. 온갖 핑계가 떠올랐으나, 체육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한편으론 점점 후회가 밀려온다.
“괜히 3개월을 끊었구나.”
운동 후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숨이 너무 차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다. 온몸은 천근만근(千斤萬斤) 무겁고, 발등이 너무 아프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배고픔, 체력에 대한 한계로부터 오는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이 운동이 싫어진다. 아침엔 새롭게 다짐하고, 저녁엔 울다시피 운동을 마치면서 하루종일 나와의 사투를 벌인다.
팔을 신경쓰다 보면 스텝이 이상하고, 스텝을 신경 쓰면 자세가 이상하다.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력은 바닥이다.

최근에는 기본운동에 체력 훈련도 더해졌다. 스쿼트, 버피 테스트, 마운틴 클라이밍, 제자리 계단뛰기 등이 추가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복싱의 로망과 워너비 몸짱에 대한 이상은 무너지러 하고 있었다.
상체를 숙인 후 팔굽혀펴기 자세로 있다 일어서 점프하는 전신 운동인 버피 테스트는 이른바 ‘악마의 운동’이라 불린다. 아무리 찡찡거리고, 투덜거리려도 코치님에게 자비란 없다. 땀이 뚝뚝 떨어진다. 원망과 서러움이 밀려온다. 분노와 눈물 섞인 말투로 최대한 진심을 담아 외친다.
“진짜 못하겠나니까요.”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오늘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요.” 코치님의 한마디에 나는 외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정말 감동이다. 아직도 갈길이 멀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뿐이다.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클러브를 낀다.

기자수첩

김미영 정치경제부/bornmal@



안철수, 무엇을 다 바꿨었나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전격 등판하면서 당대표 선거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3일 당대표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며,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엔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이로서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선, “제 모든 것을 다시 올려놓아 당대표가 되는 데에 바칠 모양인가 보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도 이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그는 올 4월께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지난해 8월엔 대선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정권 교체

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표현은 안 전 대표가 그렇듯 정치인들이 주로 어느 자리에 출마 선언을 할 경우 등에 쓰는 일종의 레토릭(말장정)이다. 어느 자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할 때에 쓰는 ‘말알이 되겠다’는 표현처럼 말이다.
안 전 대표는 안랩 대표로서 바이러스 백신인 V3 백신을 무료 배포했던 공공성, 새 정치를 들고 나왔던 참신성, 그리고 이제는 두 번의 대선후보, 한 번의 당대표를 지낸 경륜 등을 가졌다고 본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너무 자주 바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가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될 듯 말 듯, 정치적인 목적지 앞에서 좌절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보좌진들이 써주는 원고의 레토릭을 앵무새처럼 읽었던 말인가. 더 이상의 레토릭은 필요없다. 만약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안 전 대표는 그의 ‘모든 것’을 말이나 몸으로 바쳐 주길 바란다.

답답한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육아 상담소

5~10세 아이 엄마들의 고민 라파! 우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원한다

생활습관 잡아주기, 적성과 꿈 찾아주기, 독서와 공부법까지 우리 아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린다!

정은경 지음 | 260쪽 | 14,000원

일상 속 상상 다이빙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또 얼마나 많은 '언 해피 타임들 (Unhappy Times)'을 쓰고 있는 걸까?

저마다의 '봄'을 꿈꾸며 살지만, 때론 언제일지 모르는 봄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강한 척, 쿨한 척,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에 지칠 때, 침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을 만큼 허영과 떨길 때 누군가로 부터 듣고 싶던 말들이 새겨진 작은 의자처럼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 줄 것이다.

김민주 글*그림 | 216쪽 | 13,500원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기업금융부 (02)799-2648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정책사회부 (02)799-2663 산업1부 (02)799-2612	서진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8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실손보험 필요 없다?... 2022년까지 '선택형 해약' 말아야

'文 케어' 보험시장 파장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번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당분간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혹여 해지했다가 건보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보통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 강화 대책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에는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실손보험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건보 보장 확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그 전까지는 실손보험 유지하는 게 유리" =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한 번에 급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적어도 그 전까지는 필요함을 의미한다.

무턱대고 해약했다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거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병원에 갈 일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특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부는 일단 3800여 개 항목을 예비 급여화한 뒤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예비급여 항목을 지정한 뒤에, 3~5년 후 재평가를 해서 급여, 예비급여,

건보, 비급여 부문 단계별 보장 확대 예비급여 항목 지정 3~5년후 재평가 무작정 없앴다간 '의료비 폭탄' 낭패

"2009년 10월 前 가입자 일단 유지 갱신형은 보험료 인화로 유지가 유리 정기형 가입자는 관망 후 해약해야"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50%, 70%, 90%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질병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의 90%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10%만 지원해준다. 2022년까지는 본인이 의료비를 내야 하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이 보장해줄 수 있다.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입원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은 회당 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표준화 이후 상품은 고객 입원에 따른 의료비 중 10% 또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굳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유인이 떨어진다. 병원에 갈 일이 적은 건강한 젊은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현재 실손보험은 대개 다른 보험에 부가된 특

	표준화 이전(2009년10월 이전)	표준화 이후(2009년10월~)	2013년 1월~	2015년 9월~	2017년 4월(기본형 + 특약)~
입원	회사자율(예:3천만/5천만/1억 원) 회사자율(예:0%/20%)	5천만원 10%	5천만원 -표준형 : 20% -선택형 : 10%	5천만원 -표준형 : 20%	-선택형2 : 급여10/비급여20%
통원 (회당)	회사자율(예:10/30/50/100만원) 회사자율(예:5천원/1만원)	30만원 병원등급별 1만/1.5만/2만원	30만원 -표준형 : MAX(병원등급별 1만/1.5만/2만원, 20%)		-선택형 : 1만/1.5만/2만원
특약					-특약(도수 등) : 350만원/50회 -특약(비급여주사) : 250만원/50회 -특약(비급여MRI) : 300만원 * 연간 한도임 MAX(2만원, 30%) * 회당 기준임
보험료 갱신주기	회사자율	3년		1년	
보장기간	회사자율	최고 100세		최고 100세 만기, 15년(재가입)	

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가입자가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5만 원 이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건강한 이들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실손보험료를 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1년형 갱신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3~5~7~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보가 다 보장해주는데... 커지는 실손보험 '무용론' =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62%(3150만 명)가 가입한 입원, 통원 치료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보장해준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4.64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매달 보험료는 27만 6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계약은 3456만 건이다.

하지만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진료비 부분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겠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실손보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센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판매되는 신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MRI 등을 발라냈는데 이런 비급여를 건보에서 보장을 해주었다면 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하겠나"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프리미엄 어린이 가족 뮤지컬

바다 탐험대 옥토넷 · 불가사리의 모험

바다 탐험대 옥토넷

1. 선물이벤트

뮤지컬을 보러와주신 모든 어린이 친구들에게 옥토넷 어린이 대원증을 드립니다!

2. 초연기념 할인 50%

6월 30일까지 예매시에 한하여
VIP석 : 25,000원 R석 : 20,000원

2017. 7.21 금 ~ 8.20 일 소월아트홀

공연시간 화, 수, 목 11시/14시 | 금, 토, 일 (공휴일) 11시/14시/16시30분 (월요일 공연없음)

티켓 VIP석 50,000원 / R석 40,000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공연문의, 단체문의 02-766-9001

제작/추진/주관 해피뮤지컬컴퍼니 레드프린팅 앤 프레스 후원

OCTONAUTS™ Meomi © 2017 VSP Ltd.

비트코인 NEWS

러시아도 가상화폐 수용... 트럼프 때문?

흔적 없는 거래... 美 자금추적 방어용 "연내 비트코인 5000달러까지 오를 것"

◇'BTC 5000달러 전망' 美 애널 "이더리움 연내 400달러 돌파" = 연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5000달러(약 563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로니 모아스(Ronnie Moas) 스탠드포인트트러스트가 이더리움의 가격이 연중 현재 가격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아스는 1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라이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아스는 "올해 이더리움은 400달러, 라이트코인은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비트코인 자동지급기 연내 150대 설치 =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 자동지급기(BTM)가 올해까지 150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설치된 BTM은 단 1대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코바닌은 쿠나 비트코인 에이전시(Kuna Bitcoin Agency) 및 쿠나 크립토크러니시 익스체인지(Kuna Cryptocurrency Exchange) 설립자는 연내 150대에 달하는 BTM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20%가량은 수도 키예프에 세울 계획이다.

◇美 SEC 인사에 뒤바뀐 '비트코인 ETF' 운명은 = 데이비드 그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관리부서 이사가 다음 달 중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기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트러스트노즈는 5일(현지시간) SEC에서 새 ETF 상품 승인을 담당하던 그림이 퇴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의 퇴사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정부로 개편되면서 SEC 내에 인사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달리아 블라스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롱스 앤 그레이 변호사가 SEC 내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SEC는 6월 달리아를 그림의 뒤를 이을 투자관리 부문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 같은 변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관측이다.

◇러시아 가상화폐 '금지→수용' 전환 배경은 =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내놓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집중하려는 움직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옥타 브리 카야 광장에 비트코인 심벌이 새겨진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 서명한 이후 러시아 당국이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 있다고 걸프뉴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재안으로 인한 악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Ethereum),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는 서면상 아무 흔적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일단 거래를 시작하면 누가 화폐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화폐의 사용 방식, 사용자 등에 제약을 가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회피책으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유명 백화점 '마루이', 비트코인 결제 도입 = 일본 유명 백화점 브랜드 '마루이'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루이는 전일본 최대 비트코인 교환소인 비트플라이어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마루이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첫 번째 대형마트다.

마루이의 브랜드 이미지가 파트너십 체결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가상화폐 기술' 블록체인으로 세금 징수 추진 = 중국에서 세금 징수와 전자송장 발부 등에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세 및 재정 정책에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크립토크인스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선진 전자 기술투자회사(Shenzhen Zhanhe Technology Investment Co.)와 함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유림 기자 hura@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류정훈 기자 jungh216@

低금리 시대,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감수하자



PB의 **티타임**

서상원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부장

원금 보장 운운하며 투자 외면하느니
세밀한 포트폴리오 구성해 자산 배분
돈은 낙관론자가 번다는 사실 기억하자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금리 제쳐
주식·채권 나눠 담고 金 분산투자 추천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던 국내증시는 상반기 정보통신(IT)과 반도체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과거 익숙했던 단기매매 패턴에 집착해 상승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투자시점을 저울질하다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하소연하는 고객들의 불만소리가 들린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해도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는 심리적 나약함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아울러 부동산 과열을 막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핵심 지역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돼 충분한 여유자금과 필요자금 조달 계획 없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같은 날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정부 정책을 무시한 채 선부는 예측과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단순히 따라하는 관행적인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저성장과 저금리는 이제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실이고 일상이다. 낮은 성장률과 금리는 고수익 투자기회가 줄었고,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산가격이 상승했던 과거와 달리 투자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저금리 시대의 대체 전략은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Risk)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피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리스크를 일반적인 위험(Danger)과 동일시하는 그릇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투자의 목적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수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명심하자. 투자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채권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자.

미국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기를 거쳐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채권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매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신용도가 개선돼 점진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고금리 하이일드 채권과 신흥국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적극 추천한다.

둘째, 저금리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제테크의 기본 투자원칙이 과거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다만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분산과 자산배분 원칙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하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통상 주식과 채권으로 핵심 포트폴리오(Core Portfolio)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자산배분 원칙을 완성하는 주요 대안 투자(Satellite Portfolio) 대상으로 금(Gold) 투자를 추천한다. 금 투자는 주식과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며 동시에 달러 가치와 금리, 물가 등 다양한 경제변수를 감안할 경우 매우 뛰어난 분산투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시대의 투자대상 자산과 상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

보이다. 부동산투자 의사 결정은 저금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과 세제정책 영향으로 가치상승에 따른 양도차익보다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월세나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의 정기적인 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 그리고 보험의 연금소득은 투자대상은 비록 다르지만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주친원 정책 강화, 스튜어디스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견권 행사 지침) 등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중견 법인의 배당 확대가 예상돼 저금리시대 대표적인 투자 대안으로 배당주는 많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이 예금 금리를 추월함으로써 원금보장을 고집하는 예금 중심의 자금운용 방식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순환 과정에서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인 금리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다.

저금리 시대 투자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아니다. 원금보장을 운운하며 여전히 투자를 외면하는 차가운 현실이 리스크의 본질이다. 매일 매일 변화무쌍한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비관론자가 이길 수 있지만, 돈은 언제나 낙관론자가 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철환의 돈 이야기

마피아 범죄수익 처리서 유래된 '자금 세탁'...국내 차명거래 처벌 강화

9·11 테러 배후 '알카에다' 등 범죄 자금 조성 '돈세탁' 악용

정부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던 다양한 불법적인 차명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강화했다. 즉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인 차명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차명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에 자산을 넣어두는 경우, 불법 도박자금 은닉을 위해 타인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혜택 범위를 초과해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경우, 친한 친구의 돈을 내 명의 계좌에 맡겨준 행위,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 명의를 이용해

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에 예금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통장 또는 가족 간의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차명거래계좌 등은 예외로 인정해 준기로 했다. 더불어 종전에는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게 세금만 추징하는 데 그쳤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금융회사도 종전에는 차명거래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이제는 건별 과태료가 3000만 원 이하로 바뀌는 등 그 처벌 수준이 무거워졌다. 이와 함께 기존 법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실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 등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입증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실명거래가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금융거래에 불편을 느끼는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처음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직원과 은행창구에서 만남을 통해서만 실명확인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즉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 인터넷을 통한 실명확인 제도는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발족되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라는 용어는, 1920~30년대에 마피아가 불법적인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수입을 주로 세탁소의 합법적

수입처럼 위장하면서 등장했다.

이 돈세탁 혹은 자금세탁의 개념은 나중에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에서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자금세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의 목적은 통상 자금의 출처나 용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세탁의 방식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거나, 도중에 자주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하거나,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입금을 기명으

로 만든 계좌를 통해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엄격한 금융비밀 제도를 갖춘 국가에 송금했다가 해외자금인 것처럼 가정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의 대부분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은닉하거나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테러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World Trade Center)을 붕괴시키는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금융기관들이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동결하기도 했다.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www.119medical.co.kr

즐거움 치과
원격진료센터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남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칫솔은 물론, 욕실 세균 걱정 끝!

욕실 종합 살균 소독기 - 에센시아

칫솔에 숨어있는 세균은 물론, 음이온 살균, 탈취 기능으로
욕실 안 공기까지 맑고 깨끗하게~
소중한 가족의 공간 욕실에 건강함을 더해드립니다.



국가공인시험연구원 시험결과
대장균, 녹농균, 포도상구균, 폐렴균, 살모넬라균

99.9% 살균!

* 위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의 제한된 규격에서 테스트한 결과로,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시험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람비스토어 검색

99.9% 강력한 살균, 98% 탈취 효과까지! 각종 세균, 악취까지 싹~ 욕실과 칫솔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 욕실살균 | 탈취기능**
 - 음이온 살균기능을 내장하여 악취제거와 공기살균으로 위생적인 욕실공간
 - 필터교체가 필요없는 무필터 기능으로 24시간 지속적인 탈취 및 살균기능
- 칫솔살균 | 건조기능**
 - 특수 자외선 살균램프와 음이온 살균의 투웨이기능으로 완벽한 살균
 - 특허기능의 히팅건조장치로 칫솔을 1시간안에 뽕뽕송송하게 건조
- 다양한 수납공간**
 - 칫솔 5개와 전동칫솔 2개 보관, 유아용 칫솔 및 치간칫솔, 면도기 살균용
 - 보조홀더, 좌우 양방향 거치 가능한 치약보관함과 위생물받이 내장

- 살균효과 99.9%**
- 냄새걱정 NO!**
- 소음걱정 NO!**
- 필터교환 NO!**

국가공인시험연구원 시험결과
대장균, 녹농균, 포도상구균, 폐렴균, 살모넬라균 99.9% 살균효과 입증!
* 위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의 제한된 규격에서 테스트한 결과로, 장소 등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I 고급형 ESA-600TB I

휴대폰 요금 제때 내고 체크카드만 썼을 뿐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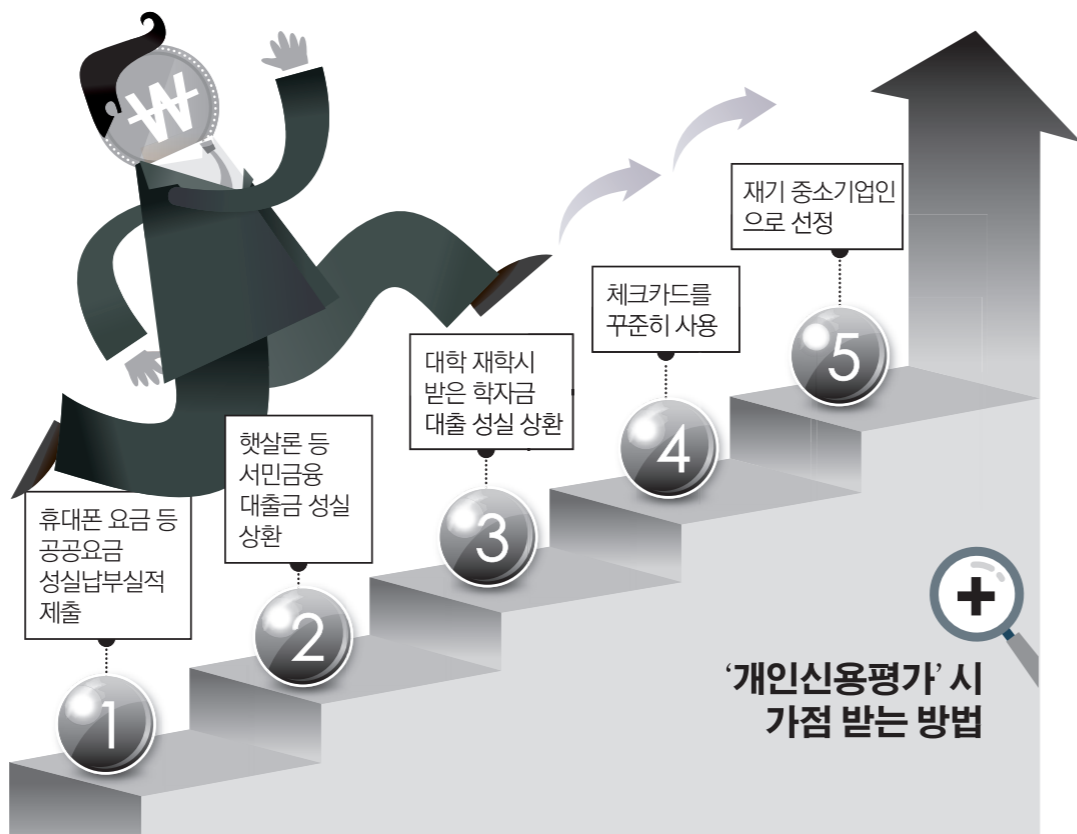
내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이주의 금융꿀팁

#1. 사회 초년생 최모(25) 씨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평소 휴대폰 요금 및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 방법이 궁금해졌다.

#2. 사회 초년생 이모(29) 씨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학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3. 3년 전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중소기업인 명모(45) 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 지원 자금을 받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경제적인 신용도를 등급으로 매긴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여부는 물론 대출 금액과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인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을 올리는 노하우에 대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공개한 개인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는 방법에는 △ 휴대폰 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 제출 △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 상환 △ 대학 재학 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 △ 체크카드의 꾸준한 사용 △ 재기 중소기업인 선정 등이 있다.

개인 신용평가 제도란? =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개인 신용평가라고 말한다.

개인 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 신용등급(1~10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이 신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고, 10등급은 반대로 가장 낮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 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 납부실적과 같은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출금액·연체·카드 실적 등 평가 평점 1~1000점... 1~10등급 부여 신용 관련 별도 가점 기준 확인을

공공요금 6개월이상 납부면 5~17점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면 45점 올라 재기 중소기업인 선정되면 최대 20점

다만 정보와 불량률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 회사마다 가점 부여기준과 가점 폭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민금융 성실상환의 경우, 나이스 평가정보는 1년 이상 상환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나 코리아크레딧뷰로는 50%를 초과해 상환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가점제도를 기억했다가 잘 활용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 높이기 '5계명' = 우선 이동통신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5~17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성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많다. 가점을 받으려면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활용하면 유익한 팁"이라며 "신용조회 회사들은 앞으로 공공요금 성실 납부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수입 범위에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이다.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했다면 6~12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다면 4~40점을 받는다.

또 서민금융대출(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달린돈 등)이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서민금융대출은 1년 이상 성실 상환이나 원금의 50% 이상 상환에 5~1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학자금 대출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가점이 10~20점이다. 체크카드 사용, 서민금융대출·학자금 대출 상환, 재창업 자금 지원은 신용정보 회사가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다. 따라서 따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다중채무자이거나 이미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 같은 신용등급 가점이 제한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박일경 기자 ikpark@

금융 이슈 따라잡기

“수수료율 높은 리볼빙 서비스 부채 위험성 제대로 알려주자”

결제일에 전액 아닌 일부만 상환 대금누적·연체·장기화 등 '악순환' 해외선 '소비자 불이익' 공지 강화

국내 카드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마련 지속적인 소득 부족 이용자에게 채무조정·재무상담 등 진행해야

해야 총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총결제금액을 3년에 걸쳐 상환할 경우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도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율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의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결제일에 최소 결제금액만을 상환하고 결제를 지연하는 경우, 미래의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으로 부채가 확대되고 장기화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부실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제 금액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이유는 현재 자금 부족으로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수수료 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미래로 미루고 현재를 선호하는 경향, 타성적으로 일부만 상환하는 습관 등의 이유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CARD Act)를 통해 최소 결제금액만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 비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CARD Act에는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카드 발급, 신용카드 이용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이자율에 대한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하나로 CARD Act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최소 결제금액만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매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최소 결제금액만을 상환했을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상환

영국도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채 장기화에 따른 비용,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일부만 상환할 경우 부채의 확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경우 수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부채 위험군을 선정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이용자가 리볼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위험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서민금융 재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정환 중소 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장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프·고든 매케론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냐?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갈라밭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엘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김해관·스나베,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적 사고를 일깨워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 02-3142-0484

코스닥 부실기업 '무더기 상폐' 예고

썬코어·비덴트·알파홀딩스 등 4곳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안 해
관리종목 포함 증시 퇴출 가능성↑
엔에스비 등 5곳 관리종목 추가

12월 결산법인 4곳이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관리종목 이어서 증시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썬코어, 비덴트, 알파홀딩스, 골드퍼시픽은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기보고서 미제출만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길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날 미제출 기업 4곳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제출 기업 4곳 모두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곳인 만큼, 이번 미제출로 증시 퇴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관련 현황

회사명	관리종목지정 추가사유
비덴트	반기보고서 미제출
알파홀딩스	
골드퍼시픽	
썬코어	
에이티세미콘	반기검토의견 비적정 (범위제한 한정)
한국정밀기계	
엔에스비	반기검토의견 비적정 (범위제한 의견거절)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골드퍼시픽의 경우 올해 3월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이다.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따라서 거래소가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부여하는 열흘간의 추가 제출 기한은 골드퍼시픽에 마지막 기회다. 만약 추가제출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즉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썬코어 역시 위태롭다. 이 회사는 2016 사업 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올해 4월 해소됐지만, 이번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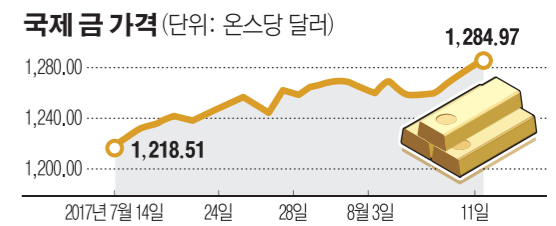
비덴트와 알파홀딩스는 이번 반기보고서와 별개로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 심사 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한 4개사를 포함해 엔에스비이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에이티세미콘 △한국정밀기계는 이번 반기 결산과 관련해 관리종목 지정사유 요건이 추가됐다. 이들 종목은 '의견거절'이나 '한정'으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이 중 엔에스비와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등 3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으로,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증시 퇴출을 가까스로 피한 종목도 있다. 이카테아와 삼원테크는 이번 반기 결산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50% 미만의 자본잠식률' 부문을 해소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北·美 신경전에 '안전성' 빛난 金 펀드

금값 지난주 급등하며 2개월 고점 경신
코스피 1개월 수익률 대비 7.5% 웃돌아
자금 유입 동기로는 부족...1억 순유출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한반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이날 9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11일(현지시간)에는 2개월 고점도 경신했다. 이에 국내 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지난 1개월 기준 코스피를 7.5% 가량 아웃퍼폼하는 등 반사수혜를 누리고 있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국내 금 테마 펀드 10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3.79%(인버스형 제외)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3.73%)을 7.5%나 앞지른 수치다.

이 중 수익률 1등 펀드는 9.70%를 기록한 한국투자자산운용의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금-파생)(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인덱스골드특별자산펀드(금-파생)C-C-e'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금값 하락에 베타하는 인버스형의 성적표는 참담했다. 국내 유일의 인버스형 금 펀드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인버스2X특별자산ETF'의 수익률은 -9.34%를 기록했다.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승 동력은 한반도 내 전쟁 가능성이다. 미국·북한 간 긴장 고조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베타한 것. 국제 금 시세는 지난달 14일 온스당 1218.51달러에서 8월 11일 1284.97달러로 최근 1개월간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내

국제 금 테마 펀드 수익률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규모	1개월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금-파생)(합성)	294	9.70
미래에셋인덱스골드특별자산자(금-파생)C-C-e	205	5.32
삼성KODEX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금-파생)	649	5.22
...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인버스2X특별자산상장지수(금-파생)(합성)	49	-9.34

* 8월 14일 기준 * 출처: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

포한 듯한 메시지를 밝힌 11일(현지시간)에는 장중 온스당 1287.91달러로 2개월 고점도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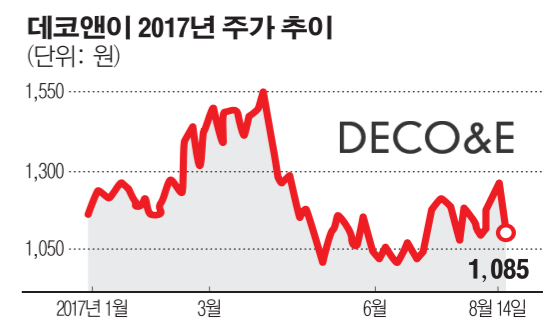
다만, 국내 금 펀드들이 코스피지수를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실제 수급 호조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되려 최근 1개월간 인버스형을 제외한 국내 금 펀드에서는 패밀티 클래스 합산 기준 총 1억 원이 순유출됐다. 가장 많은 28억 원이 순유입된 펀드도 '블랙록월드골드펀드'로 수익률도 2.32%로 여타 펀드 대비 낮았다.

이창민 KB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금 펀드의 경우 규모가 큰 펀드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일회일비하는 자산도 아니다"라며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이슈 등 보다 매크로 요소들이 결정적 인 듯하다"고 진단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기업 주식담당자 주담과 Q&A / 키워미디어그룹

데코앤이 경영권 인수 "의류유통 강화"

여성의류 생산·판매 40년 경험 매력적
키위, 씨위 아시아 총판...유통망 주목
7월엔 中화련선광과 3000억 규모 계약



키워드미디어그룹이 데코앤이의 지분 6.83%를 1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11일 체결했다. 키워미디어그룹의 이번 인수 결정은 국내외 의류 유통망 확대의 일환이다. 이 회사는 데님 브랜드 씨위(SIWY)의 아시아 총판을 맡아 다각도로 유통망을 확대 중이다. 앞서 7월에는 중국의 초대형 국영유통기업 화련선광과 계약을 체결하고, 3000억 원 규모의 한국 제품 유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키워드미디어가 최대주주로 올랐던 데코앤이는 40년간 여성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해 온 패션기업이다. 인수자인 키워미디어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향후 시너지 창출 계획에 대해 들었다.

-인수 목적은
"데코앤이를 의류 공급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키워미디어가 의류 유통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만큼, 데코앤이와 의류 사업 분야에서 국내 유통망을 공유·활용하려 한다."

-중국 화련선광과의 시너지 계획은
"화련선광은 의류 사업에 대한 의지가 크다. '아나카프리(ANA CAPRI)', '나인시즈뉴욕(9NY)',

'캐시(CASH)' 등의 브랜드는 화련선광을 통해 해외 진출할 예정이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재무제표상 지난해 손실이 많은데, 원인은 데코의 브랜드 때문이다. 현재 다른 브랜드의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나카프리와 나인시즈뉴욕은 흡수병에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캐시는 멀티포인트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 계획은
"의류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그간 수차례 만나 논의를 이어왔다. 데코앤이가 재고 정리와 구조 조정을 모두 끝내고 재무구조를 개선한 만큼, 실적 개선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본다."

최두선 기자 sun@

기업 PR

지주사 내 핵심계열사 집중 투자...안정적 성과에 초점

하이투자증권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펀드'
1년간 수익률 28.7%...코스피 상승률 훌쩍



하이투자증권은 하반기 주주환원 강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주 투자 대상인 지주회사들이 하반기에도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자체 사업 호조 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호한 펀드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28.7%로(A클래스·2017년 7월 말 기준)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대비 9.7%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냈다. 2007년 설정된 이후 누적수익률은 101.7%다.

우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지주회사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큰 실질적 지주회사, 그 그룹 핵심계열사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펀드 운용은 지주회사 및 준지주회사와 핵

심계열사의 비중을 7대 3으로 유지하되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 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대희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부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실적 호조와 자체 사업의 순항, 그리고 자회사보다 저평가된 점으로 인한 투자 메리트가 높다"면서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 등으로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2932호 (2016.06.03~2017.06.02)

교보증권 체크카드와 함께하는 건전한 소비습관의 시작

혜택의 크기가 다름!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전 가맹점 0.5% 캐시백?
모두모아 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서비스

-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최대 1천원당 1마일)
- 온라인몰** 온라인몰 5% 할인(SSG,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 외식** 점심 11시~14시 음식점 10% 청구할인
- 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10% 청구 할인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10% 청구 할인
-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10% 청구 할인
- 통신요금**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스포츠**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예매 20% 할인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한도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모두모아 체크카드 서비스

- 캐시백** 전 가맹점 0.5% 캐시백(이용한도 내 적용)

*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공동 혜택

- CMA 금융서비스 혜택** CMA 계좌 내 잔고를 RP에 자동투자하여 수익 제공
-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보다 30%의 소득공제 혜택

서비스 제공 조건

- 전월 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 가맹점에서의 이용금액을 의미하며 전월 실적 산정 시 5개 온라인몰(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몰), 제세공과금, 상품권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기준을 따릅니다.
- 카드 수령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카드이용실적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됩니다.

고객센터
1544-0900

카드문의
1566-2224

홈페이지
www.iprovest.com

[마일리지 적립 기준]
- 마일리지 적립은 국내 가맹점 이용액 기준으로 한선 적립되며 적립 기준액(3천원, 1천원)으로 반올림 처리됩니다.
- 이용금액 중 제세공과금, 상품권, 대학등록금은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와 관련한 상세 서비스 내용 및 공제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MA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관련 상세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셈, 'RF 센서' EU 프로젝트에 공급

(능동형 무선주파수)

얼굴 인식 IoT 장비 '유니이지스' 5월 유럽 통합 규격 인증 받아 1.4조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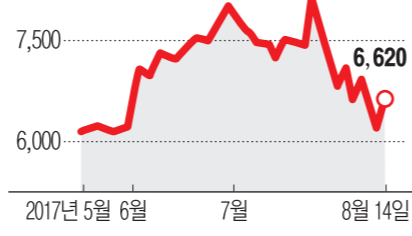
유니셈이 유럽연합 1조4000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능동형 무선주파수(RF) 센서를 공급한다.

16일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기업 유니셈은 이달 내 영국 리버풀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RF센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RF센서는 모바일기기 고유 식별번호를 수신해서 보안에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장치이다. 유니셈 IoT사업부에서 개발한 RF센서 '유니이지스'는 Wi-Fi, NFC 등 무선 신호 탐지 기술과 카메라를 통한 얼굴 및 객체 인식 기술이 통합된 IoT 장비다. 특히 △유동인구 분석 △방문 및 이동 패턴 △특정 신호 추적 등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해 관광, 광고, 보안,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무선장비에 내장된 무선인터넷(Wi-Fi) 신호를 탐지해 평상시에는 등록사용자와 비등록 사용자의 접근통제, 보안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푸시형 메시지를 전달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니셈 주가 추이

(단위: 원)



앞서 유니셈은 5월 전자장비 인증업체 SIEMIC로부터 RF(Radio Frequency)센서 '유니이지스(UniAegis)'의 설계, 개발, 제조에 대한 유럽 통합규격인증(CE)을 받음으로써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유니셈은 CE 인증으로 유럽 스마트 시티 시장 진출하게 됐다. 지난 1월 EU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즈-2(Eurostars-2)에 선정돼 유럽 12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관광지 수익 최적화(Profit Optimization for Tourism Destin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로스타즈-2의 총사업 규모는 1조 4200억 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유니셈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036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2.1% 늘어난 151억4900만 원을 기록했다. 김우림 기자 hura@

중가는 액션스퀘어 '블레이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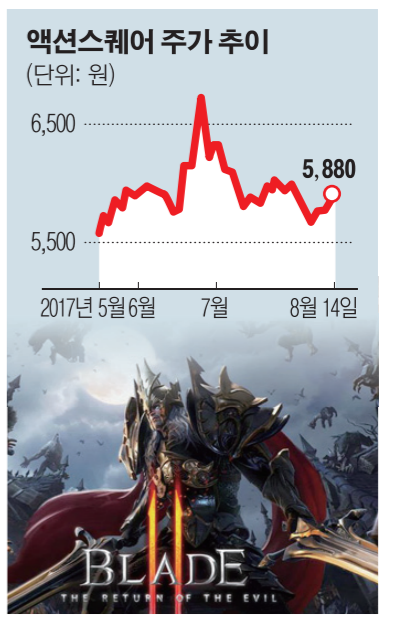
현지 개발사 레도인터랙티브와 다중접속 액션게임 사업협력

액션스퀘어의 기대작 '블레이드2'가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에 진출한다. 액션스퀘어는 중국 게임개발사 레도인터랙티브(Ledo Interactive)와 '블레이드2'를 활용해 다중접속 액션역할수행게임(MMOARPG)을 개발하는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션스퀘어는 '블레이드2'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지원하고 향후 모바일 게임 성과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

'블레이드2'는 2014년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시장을 개척한 '블레이드'의 후속작이다. 지난 6월 카카오, 네시삼십삼분과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레도인터랙티브는 2007년 백전스튜디오로 출발해 '신조협' 시리즈를 개발했고, 2014년 레도인터랙티브를 정식 설립한 후에는 '마력보배', '암흑여명', '킹오브 파이터즈 970L' 등을 개발해 중국 앱스토어 상위권에 진입시킨 모바일 전문 개발사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우선 출시를 목표로 모바일 MMOARPG '블레이드2(가칭)'를 개발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중 국내 및 미국 지역의 서비스 판



권은 액션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다.

이승환 액션스퀘어 대표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블레이드2'의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중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레도인터랙티브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퍼블리셔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휘 레도인터랙티브 대표는 "'블레이드2'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높은 완성도에 걸맞은 대작 MMOARPG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양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타이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발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코스닥 이전 추진 케이피에스, 상반기 매출 '대박'

고부가가치 6세대 OLED 장비 공급 매출 142억...작년보다 338% 늘어 LGD·중업체 수요가 매출 급증 견인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OLED 유기물증착공정 장비 전문기업 케이피에스가 6세대 OLED장비 덕에 올 상반기 매출이 크게 늘었다.

케이피에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142억3000만 원, 영업이익 42억6300만 원, 당기순이익 25억4300만 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38.25% 성장한 수치이며,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애플사와 OLED 패널공급 및 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언한 LG디스플레이의 매출과 중국 향 매출 증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LG디스플레이와 중국 패널업체들의 수주가 올 상반기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장비 공급을 통한 영업이익률 성장과 재무안정성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35억

원으로 집계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장비산업의 특성으로, 7월에 80억 원 이상이 회수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케이피에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6%에서 올 상반기 30%로 크게 향상됐다. 재무안정성 또한 개선 중으로 지난해 333%였던 부채비율이 올해 상반기 125%로 줄어 들었고,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상반기 30%로 감소했다.

한편, 케이피에스는 고객사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2014년부터 중국 진출에 성공해 현재 BOE, 티엔마(TIANMA),

EDO, CSOT 등 중국 디스플레이 선두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중국 업체들이 2021년까지 6세대 OLED 설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케이피에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 회사는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OLED FMM 인장기에 대한 정밀 고속 위치제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비 제조뿐만 아니라 라인 운영과 제어까지 차별화된 공정 기술을 확보 중이다. 케이피에스는 패널업체들의 생산라인 대형화에 따른 품질 문제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객사별 맞춤 대응이 가능해 중국향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캠시스, 2분기 연속 흑자...상반기 영업이익 25억

휴대폰·의료기기 카메라 모듈 제조 베트남 공장 주력생산 제조가 낮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 캠시스가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캠시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1979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기록해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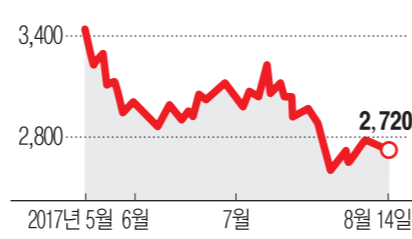
캠시스는 휴대폰 카메라모듈 및 IP 보안 카메라, 의료기기용 카메라 등을 개발, 납품하는 회사로 주 고객사는 삼성

전성자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뿐만 아니라 A시리즈, J시리즈, On시리즈 등 다양한 보급형 모델에도 카메라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그 외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파나소닉 등이 있다.

특히 2분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22.1%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카메라모듈 공급 수량이 약 6.5% 증가한데다, 8급 이상의 고화소 모델 및 AF(오토 포커스) 기능이 탑재된 제

캠시스 주가 추이

(단위: 원)



품 증가로 ASP(평균 판매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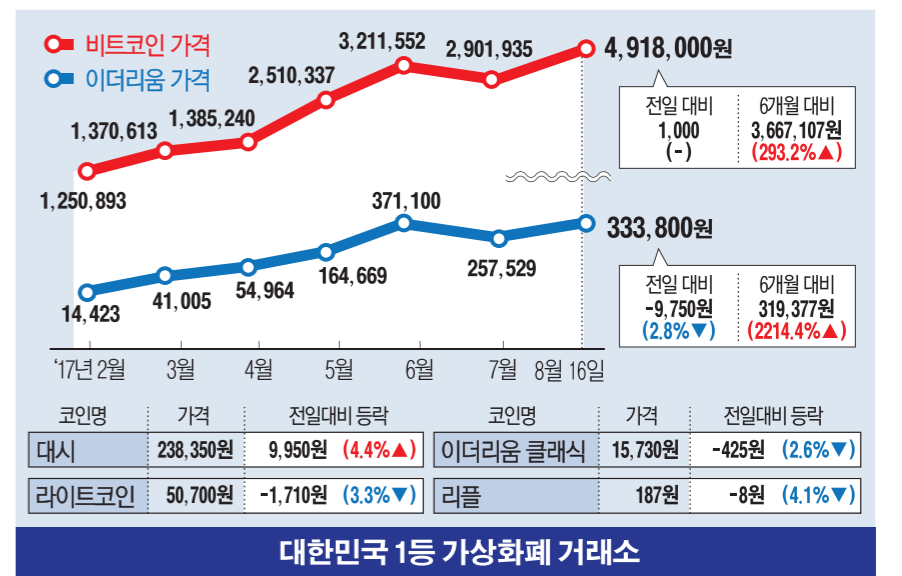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244.6% 증가되면서 19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에는 환율

저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면서 당기순이익 32억 원을 보였다.

캠시스 관계자는 상반기 주요 흑자 요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베트남공장을 카메라모듈 주력 생산기지로 운영하면서 제조경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으며, 전공정 자동화와 후공정 검사장비 보강 등을 통해 양산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불량 비용을 줄였다"며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세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빗썸 지수 (2017년 8월 16일, 08:00, KST)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들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 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니스
2013년 10월 15일 오픈

#우리모두의에어컨 _ 7



알뜰부녀의 무풍이야기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금지령을 내리셨던 아버지가
 이젠 매일 에어컨을 켜세요
 초절전 무풍 냉방이 알아서 절약해주니까
 전기요금 고지서가 하나도 안 무서우시대요~
 -우리모두의에어컨 사연 콘테스트 증박지은님의 이야기-



모델명 : AR06M5170HNQ



모델명 : AF25M9970BFR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1등급

삼성 무풍에어컨 우리모두의에어컨



QR코드로 자세한
제품 소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풍냉방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후,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냉방 운전과 하고,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 기능을 선택하세요. *무풍냉방, 무풍제습, 무풍냉방은 무풍모드, 스마트패널 운전 시에만 작동됩니다.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차가운 공기 흐름)에 의한 원하지 않는 용의 냉각이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하며 국제공인기관 인터텍(Intertek) 평가 결과 쾌적 기준 만족

SAMSUNG